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75 1982년 11월 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November 9, 1982

NOV 1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젊음과 재치의 잔치

폭소 자아낸 청소년 예술제

"한마디로 이민 온지 12년만에 이렇게 웃어보기는 처음인 것같습니다."

한인대학생들의 한인양로원 기금마련 자선예술제를 보고 나오는 한 교민의 말이었다.

6일(토) 저녁 7시부터 11시반까지 약4시간 반동안 벌어진 제1회 청소년 자선예술제는 쌀쌀한 초겨울날씨를 무릅쓰고 모인 4백여 관객들을 실컷 웃겼다.

이날 예술제에서 대학생들은 한인양로원 기금으로 약 1천달러의 공연수익을 올렸고, 공연장 입구에 설치된 모금함에서는 50여달러가 걷혔다.

1, 2부로 나누어진 이번 예술제는 1부에서는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2부로 들어서자 본격 쇼무대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급작히 창단된 6명의 젊은이들(Young Six: 김현규, 이성제, 정경화, 폴송, 피터송, 나정필)이 첫 무대임에도 불구, 프로악단 못지않은 사운드와 리듬으로 〈편지〉등 고국시절의 정다운 노래를 선사하며 장내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2부 사회자 이인배·이성희조의 재치있는 사회, 기타를 메고나온 김승욱의 〈가시리〉, 앵콜을 받은 유만식·권혁일 듀엣의 〈밀양아리랑〉, 〈나는 못난이〉에 힘입어 장내는 열기를 띠었고, 촌극 정광호감독의 〈최마담댁 세째아들〉과 정태교감독의 〈MS.코리아선발대회〉에서는 계속되는 폭소로 출연진도 관객도 신바람이 났다.

최마담의 셋째아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적극파 여대생의 친구들과 최마담집 아들들이 보여준 풍자적 촌극은 남자가 여자를 쫓아 다니던 옛날과는 달리 여자들이 더 적극적인데서 벌어지는 코메디적인 소재로 웃음을 자아냈다. (정광호, 이영희, 윤혜련, 민태규, 김영애, 박성민, 조영근, 최광식, 김도성 출연)

미즈(미스와 미세스를 통칭)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즈 전라도, 미즈 경상도등 5개지역 출신 미녀들로 분장한 남자대학생들은 날씬한 각선미(?), 틈이 있을 때마다 드러내 보이는 배꼽과 선정적인 히프의 움직임, 흘러내리는 스타킹을 스스럼없이 팬티를 내다보이며 끌어올리는등 관중들을 아찔아찔하게 만들었다.

1부순서는 장영채 한인회부회장, 이상훈총영사의 인사말에 이어 한인교향악단의 현악 앙상블(13명), 관악 앙상블(6명)의 연주, 한인장로교회 등불중창단과 할렐루야 밴드, 만주 하르빈교민이었던 서정의 〈보리밭〉, 김종근의 열창 〈사랑이여·재비〉, 민보련의 피아노독주와 이웅건의 기타를 결들인 〈세노야〉 〈친구〉, 서선희등의 〈풀룻과 기타〉 2중주, 김용순 무용단의 한국무용으로, 윤주석·이영희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출연진은 대개 어려서 이민온 토론토대학교와 욕대학교 학생들 50여명.

한 교포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재조정, 다시 한번 공연, 더 많은 교민들이 구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로 분장한 남자대학생이 엮은 미즈·코리아 선발대회는 폭소에 폭소를 자아냈다. 마이크를 쥔 미니스커트의 주인공이 최고상을 따낸 미스·대만교포.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 감격에 못이겨 매혹적인 히프전체를 드러내보여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프로악단 못지않은 사운드로 열창한 〈영·식스〉. 〈오니언즈〉의 힛트송 편지 등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서울중심가서 데모

(서울-LA지사 경유) 5백여명의 대학생들이 광주학

광주학생의거 51주년 맞아 대학생들 반정부구호

생의거 51주년을 맞은 3일 밤 서울 중심가에서 데모를 벌여 데모진압경찰관들이 최루탄을 발사, 진압했다.

학생들은 반정부구호와 함께 전단을 뿌리면서 30분간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반정부구호이외도 언론 및 노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처음 서울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날 시위로 몇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동안 교내시위를 벌여왔으나 이날 처럼 서울도심지까지 몰려나와 경찰과 충돌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시위는 광주학생의거를 맞아 학생들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자 서울 곳곳에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배치된 가운데 일어났다.

한국 해외선교사 37개국 145명

(서울 8일=연합)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는 37개국에 145명에 달하고 있다고 교회관계 보고서가 밝혔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아시아로 73명이고, 유럽이 36명, 남미 23명, 아프리카 7명, 대양주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파별로는 장로교 62명, 순복음 36명, 오메가선교회 12명, 순결교회 10명, 감리교 6명등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6명, 필리핀 11명, 인도네시아 5명, 방글라데시 4명, 파키스탄 4명등이다.

해외투자 급증 9개월간 $5,740만

(서울 8일=연합)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금년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재무부가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첫 9개월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은 5천740만달러로 지난해 1년동안 총투자액 3천170만달러 보다 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도별 해외투자액은 78년도에는 3천870만달러, 79년도 1천880만달러, 80년도 1천55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체들이 해외투자사업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내년도의 해외투자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재무부 관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14일 산타·클로스 행렬 처음으로 시민들이 주관

이튼 77년만에 불경기로 도중하차

시민들이 주동이 되어 거행되는 메트로·토론토의 첫번째 산타·클로스 퍼레이드의 준비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론토의 명물중의 하나인 산타·클로스 퍼레이드는 지난 77년간 이튼백화점회사가 계속 주최해 왔으나 금년부터 이튼측이 심한 불경기때문에 주최를 못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계속하자는 운동이 시민들 사이에 벌어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메트로동물원 회장이며 금년도 퍼레이드조직위원회 멤버인 론·바바로씨는 14일(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방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측은 각 시티에서온 우수 밴드및 꽃차들을 위한 경연대회를 열것도 구상중에 있다.

금년도 퍼레이드는 오후 1시에 크리스티와 블루어를 출발, 블루어·스트릿·웨스트를 따라 동쪽으로 유니버시티·에비뉴까지 간후 다시 남쪽으로 진행하여 새 시청앞 내단·필립스광장에서 끝이 난다.

산타·클로스행사를 계속하기 위해 25명의 스폰서가 출현, 각자 3년간 2만5천달러씩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부금의 대가로 꽃차에 이들의 선전물을 부착시켜 주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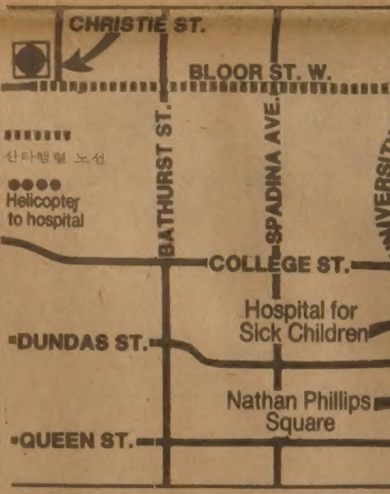
이튼백화점회사는 금년에는 의상과 꽃차만을 기증한다.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기부했고 최하 1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까지 기부한 개인만도 100여명에 달한다.

2만5천달러 기부자의 하나인 CBC(캐나다 방송공사)는 퍼레이드를 생방송할 계획이며, 산타와 인터뷰 〈어린이에 보내는 산타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퍼레이드 총경비는 50만달러이며 진행시간은 50분쯤, 22개의 행렬에 2천여명이 동원된다.

금년 퍼레이드의 특징은 밴드가 동원되는 것 이외에 연방경찰(RCMP)기병대가 퍼레이드를 이끄는 것이다.



◆산타행렬은 오는 14일 크리스티에서 출발 블루어를 따라 동쪽으로 갔다 유니버시티에서 남쪽의 내단·필립스 광장에서 끝난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WE'LL TRADE YOU PROFIT FOR SPACE"
"소매업을 위한 또 하나 전통의 도매상이 여기 있읍니다"

품목
○모든 장난감종류
○각종 문방구
○재봉에 관한 종류
○하드웨어 종류
○스타킹 종류
○Pet Supplies
○Baby Products(어린이용 기구)
○전기기구 종류(전기코드, 밧데리)
○고무제품
○Hair Care
○집기종류(House Ware)
○알미눔, Foil종류
○Glass Ware
○Cleaning Aid

GOODWIIL SALES LTD. 88 STREGIS CRES SO., DOWNSVIEW (킬과 세퍼드북쪽) ☎ 630-5401 ※주문 환영 ※철저한 신용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TOR. ON.

열기없던 자유당 전당대회

존터너 침묵, 최초 여성당의장

이태은씨, 한국계 유일한 대의원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악화된 경제와 거듭된 경기회복책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집권당 자유당의 전당대회는 어쩌면 트루도수상집권 14년에 종지부를 찍는 전당대회였는지도 모른다.

캐나다 전국에서 모여든 2천여 대의원들은 트루도가 물러난 이후의 자유당에 대해 토론했으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새 당의장에 전 체육장관 아이오나·캠패그노로 여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3일간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일~8일 연 3일간 오타와 샤토·로이에 전당대회에서는 트루도의 사임과 함께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총선대책을 물으려는 대의원들의 반기도 있었으나 불발로 끝난채 트루도의 경제대책만 들었다.

트루도수상은 연방정부의 새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획기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하면서 "경제회복은 정치적 신뢰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새 자유당 당의장에 선출된 캠패그노르 여사는 79년까지 연방의원으로 체육장관등을 지냈으나 79년 선거에서 (B.C.주 출신) 의석을 잃었었다.

이번 대회에서 현당의장 노만·매크레오드르를 거의 2배차로 물리친 캠페그노르여사는 자유당에 새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유당 전당대회 개표수는 발표 안함)

당의장의 위치는 거의 실권없이 명목상 의장으로만 지낸다. 대부분의 당의장은 2번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캠패그노르여사의 출현으로 현 당의장이 패했다.

일부 정계소식통은 캠페그노르여사를 캐나다 최초의 여성 수상후보감이라고 평했다.

한편 트루도 이후의 자유당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존·터너 전 재무상도 이번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시선을 모았다. 그는 차기 수상후보로 자유당 지도력에 도전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을 얼버무렸다.

대의원중에는 중국계 7-8명, 일본인 2명이고,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본보 오타와지국장 이태은씨가 참가했다.

◆새로 선출된 자유당당의장 아이오나·캠페그노로여사와 트루도수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루도수상의 지도력이 문제됐으나 별탈없이 끝났다.

사이언스·센타 입장료 인상

온타리오·사이언스·센타(Ontario Science Center)의 입장료가 11월1일부터 최고 100%까지 인상됐다.

13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입장료는 종전의 1달러에서 2달러로, 성인은 2달러에서 3달러로 됐고 또한 5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의 입장료는 50센트에서 1달러로 인상됐으나 5세이하의 유아와 노인은 계속 무료이다.

회계사 차상범씨 레이크쇼서 개업

토론토에 또 하나의 어카운팅·서비스 업소인 「차상범회계사무소」가 탄생됐다.

이번 3305 Lake Shore Blvd. W.(225-8301)에서 회계업을 시작한 차씨는 미국 캐롤라이나의 Warren Wilson College에서 B.A.(경제학), 루이지아나주립대학에서 M.Sc(경제학), 워터루의 Wilfrid Laurier University에서 Diploma accounting을 마쳤다.

알파, 베타 합동모임

11일 한인Y회관

온타리오 남부지방의 와이즈맨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친교 모임을 가진다.

오는 11일(목) 하오6시30분부터 3시간동안 토론토 한인Y회관(931 College St, Tro.)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한인와이즈맨 알파클럽(회장 천중환)과 베타클럽(회장 이석현)의 합동주최로 열리며, 두 클럽회원을 비롯, 노스욕·키치너·워털루·나이아가라등 클럽 멤버들이 다수 참가한다.

친교및 레크레이션은 빙고게임, 차이니스·옥션(경매놀이), 씽얼롱등 다양한 프로로 진행된다.(회비: $6)

교 민 동 정

◆최규식(토로토한인성당 주임신부)=11월3일 부임, 이제까지 매주 목요일 미사시간 하오5시30분이던 것을 7시30분으로 연기했다. 목요기도회원들의 편의를 피하는 조처로.

토론토대교구 신부세미나가 7~9일 공항근처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려 최신부도 이에 참가한다.

"찬란한 音色으로 청중매혹"

피플 誌에 소개된 鄭京和씨

한국인음악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바이얼리니스트 정경화씨가 근간 피플 지에 소개되었다.

정양의 가족배경과 최근 활동을 소개한 이잡지는 정양이 공연활동을 주로 유럽에서 하기때문에 같은 수준의 바이얼리니스트 이츠학·펄맨만큼 미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녀는 불과 얼음같은 찬란한 음색으로 관중을 매혹하며 지휘자 앙드레·프레빈은 정양의 연주를 「기적」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정양은 1년에 1백여회의 콘서트를 연주하며 레코드 취입에도 힘써 83년 1월에는 차이코프스키와 멘델스존의 바이얼린협주곡을 취입한 그녀의 13번째 레코드가 런던레코드회사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양은 이렇게 바쁜 공연일정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좀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런던에 자기집을 구입한것으로 알려졌다.

▲「피플」지에 소개된 바이얼리니스트 정경화양.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04>

29분의 1 ⑨

한女人이 택시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마인은 우편물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건 왜 여기에 쌓아두나요?』

『여기다 놔두면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집어가거든요. 제가 일일이 갖다주다가는 경비를 설수 없지요.』

『그렇겠군요.』

마인은 맨위에 놓여있는 우편물 수취인 이름을 눈여겨보았다. 「한철민」이라고 쓰여있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영리하게 생긴 어린 소년의 이름이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편물을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905호. 틀림없는 그 소년이었다. 그것은 파란색 볼펜글씨였는데 아주 서투르면서도 정성들여 쓴 글씨였다.

『그 댁에 무슨일이 있는가요?』

경비원이 입을 훔치면서 물었다.

『아, 아닙니다. 뭐좀 알아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전, 아까 경찰에서 왔다고 하기에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지요.』

『그 댁에 바깥 주인 말고 다른 남자가 혹시 드나드는거 보지 못했읍니까?』

『아니요. 그런건 보지 못했는데요.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뭐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 주인은 젊은 나이에 빨리 출세했더군요.』

『네,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 부인은 매일외출하나보죠?』

마인은 마침내 맨 위에 놓인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집 꼬마가 그러던데요.』

그는 편지를 뒤집어놓았다. 경비원은 담배꽁초에 불을 붙였다.

『남의 일에 참견할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하는 것같아요. 하여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출하거든요. 바깥주인이 나가기가 무섭게 외출하거든요. 살림은 식모한테 맡겨둔다고 하지만, 그 살림이 뭐가 되겠어요. 바깥 양반은 그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여간 제가 보기에도 한심해요.』

『좋지 않은 습성이 있나보군요. 하루도 외출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것도 일종의 병이지요.』

『병이고 말고요.』

경비원은 맞장구를 쳤다. 그가 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마인은 담배를 내밀었다.

중년의 사내는 새 담배에 불을 당겼다. 그 사이에 마인은 수첩을 꺼내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발신자의 이름은 이옥자였다.

『저기 옵니다. 바로 저 여잡니다.』

경비원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말했다.

한 여인이 택시에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마인은 경비원에게 주의를 주었다.

여인은 밤색 세무코트를 입고있었다. 미인이었다. 머리는 요란스럽게 볶은 스타일이었다.

경비원이 창문을 열면서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편지 왔읍니다.』

『아, 그래요.』

朴男 그림

미국 교포 이혼증가

이민3년내 가장많아

한인컴뮤니티의 법률문제 의뢰건수가 과거 가족초청, 영주권및 시민권취득등 주로 이민관계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탈피 이혼, 비즈니스, 형사문제등 다변화 양상을 띠고있다.

또한 한인법률계의 큰 변화는 최근 수년간 한국인만을 고객으로 삼는 미국인 변호사사무실들이 코리아타운내에 부쩍 늘어나 이제 교포들은 반드시 한국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각자 상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선택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법률창구를 통해 비쳐진 교포들의 상담실태를 살펴보면 형사문제에서 취중운전, 폭행, 총기소지, 기타중범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에 관계되어 변호의뢰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 변호사사무실들은 민사, 형사, 비즈니스, 이민, 약혼, 자동차사고, 의료사고등 제각기 담당분야를 갖고있어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힘들지만 이혼의 증가추세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은 이민온지 3년사이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며 5년이 지나면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착과정에서 오는 정신·문화적 갈등으로 이혼연령층은 20~30대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왔던 40대층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 한인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이혼을 서슴치 않아 초기이민자들이 미국생화의 적응과정에서 아직도 적지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컴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 단순 개인비즈니스에 국한 되었던 상업분야 상담도 주식회사설립, 한국상사·지사설치, 외국무역관계 클레임, 비즈니스소송 의뢰등 그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복잡한 계약서류에 정확한 지식없이 무조건 서명을 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직도 계속되어 계약액수에 관계없이 법률적상담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LA지사

나치전범 라우카체포 ②

수사진 증거수집에 고심

이 노인이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비밀경찰 헬뮤트·라우카라는 확신이 가자 연방경찰은 곧 법무성에 이를 통보, 스티랑카출신의 아머레이싱검사가 수사진에 추가됐다.

아머레이싱은 서독, 소련, 미국, 이스라엘등을 여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캐나다형법에 의하면 시민권자가 외국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확증이 있어야 외국에서 재판받게 하기위해 자기시민을 인도(추방)할 수 있다.

아머레이싱은 라우카산하의 유태인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중 생존자 6명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용소있던 리투안니안에 근무했던 100명의 케스타포사진중에 라우카도 들어있었고 라우카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증인들도 확보했다.

이때 토론토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이 정보를 입수, 토론토에 살고있는 나치전범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지난 6월17일 도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예타형사와 아머레이싱검사는 라우카를 체포, 신병을 확보했다.

돈·제일(토론토교도소)에 감금된 라우카는 보석이 허락되었으나 유태인과격파에 의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그는 이를 거부했다.

서독, 소련을 여행하면서 추가증거를 수집한 검찰측은 케스타포의 비밀문서중 라우카의 사인과 현존하는 캐나다시민의 사인이 동일필적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검찰이나 서독당국은 캐나다역사상 전범으로서 캐나다시민을 외국에 인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예로 소련은 라우카와 비슷한 전범으로 캐나다시민 하라드·펀푸리스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인이었던 펀푸리스씨는 5,128명의 유태인과 311명의 집시를 학살한 혐의를 받았으나 소련에 인도되지 않은채 캐나다에서 평화스럽게 살다가 3개월전 사망했다.

오른쪽은 죽음, 왼쪽은 삶

유태인재판 손가락하나로 끝내

리투안니안지방에 감금됐던 유태인중 노인, 병약자, 소년등 약 13만명이 살해됐다. 이중에서도 카우아스지방의 11,584명의 살해에 라우카가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하는 라우카의 목소리는 많은 유태인생존자중에 아직은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왼쪽은 삶이요, 오른쪽은 죽음이었다.

2차대전후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베르린에 감금된 후 지게하인나치수용소에서 2년간 복역했던 라우카는 1950년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혼란을 이용, 쉽게 캐나다이민을 허락받았다. 뉴·브런스익의 세인트·존스항에 도착한 라우카(Rauca)는 그의 이름중 C를 K로 고친뒤 무난히 캐나다에 입국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부인과 두아들은 현재 동독에 살고 있다.

라우카외에도 3-4명의 나치전범 용의자가 현재 캐나다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라우카의 서독인도가 행해지면 더욱더 수사에 활기를 띨것이 분명하다고 연방경찰은 보고있다.

캐나다수사당국은 캐나다에 많은 전범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서독의 나치전범 전담검사인 아델버트·루켈박사는 "캐나다에 적어도 1,000명의 나치전범이 숨어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최근 수년내 이숫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이유는 미국 FBI의 수사망을 피한 전범자들이 캐나다에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태인보호위원회 회장으로있는 매길대학 어윈·콜터교수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의 나치전범수가 약 75명~100명으로 대부분이 온타리오에 살고있다"고 말했다.

라우카에 대한 정보도 콜터교수가 수집, 이를 지난 4월에 법무성에 알림으로써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끝)

◆"유태인은 이렇게 죽어갔다" 소련에 보관중인 리투아니안 학살현장사진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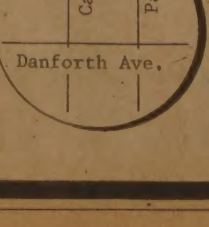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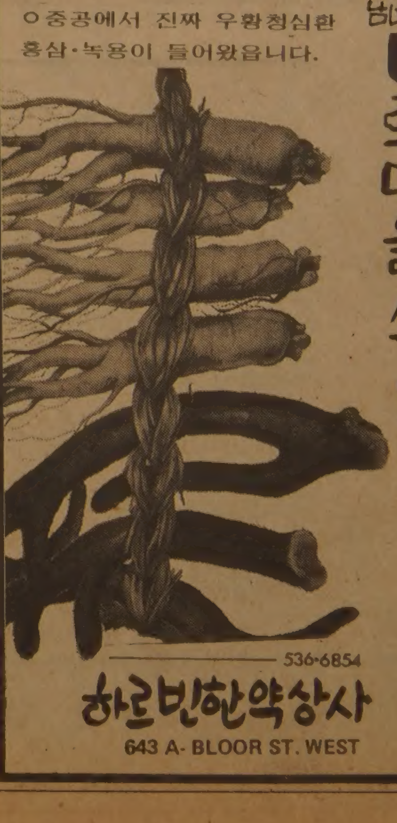
코리언·저널 창간 제10주년기념
〈제 5 회〉
한인친선탁구대회

일 시 : 1982년11월27일(토) 오전9시
장 소 : 994 Carlaw Ave. 〈웨스트·우드 쥬니어고등학교〉
(Carlaw Ave. × West wood Ave.)
종 목 : ● 개인전(남·녀) : 대표팀, O.B. 팀(만35세이상)
● 복식 ● 단체전
회 비 : 단체전 : $30.- 개인전 : $5.- 복식전 : $7.-
상 품 : 각 종별 부문 우승, 준우승 트로피
⊙신청접수 : 코리언저널 757-8000, 431-4896(R)



주관 : 캐나다 탁구협회
주최 : 코리언·저널신문사

○중공에서 진짜 우황청심환
홍삼·녹용이 들어왔읍니다.
남녀노소
보약먹을 시기입니다



536-6854
하로빈한약상사
643 A- BLOOR ST. WEST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神은 과연 全知全能한가

「프로세스 神學」이론… 論難 가열

LA타임스 報道

惡의 범람 神이 이를 통제 못한다는 증거 神을「사랑의 概念」으로 다시 定義해야

神은 人間 自由意志 제외한 모든것 통제 問題는 왜 神이 慈悲를 베풀지 않는가에

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고 신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차원에서 정의하려는 「프로세스신학」이론에 관한 보도는 기독교계의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클레어몬트 신한대학 존·코브교수와 해롤드·쿠쉬너교수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신학이론으로 정립시키려는 이 「프로세스신학」 이론은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단순한 명제에서 시작한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특히 믿음이 바탕이 되어 건설된 미국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범죄와 악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신이 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신을 전지전능하다기보다는「사랑의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팅턴비치의 한 기독교 신자도 「프로세스신학」이론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이 신의 말씀인가 아니면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증언이냐고 반문하면서 만약 성경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성경으로부터 배울것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면 기록과 번역상의 모든 변화는 신의 손에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신은 신이 아니라 곧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스리지에 거주하는 다른 신자는 「프로세스신학」이 신의 존재와 그의 창조를 모독하는 이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성경에서도 누차 언급되어 있듯이 신은 세상의 불행을 창조했으나 악을 처벌해왔다고 전제하고 프로세스신학자들은 신의 신성함을 모독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을 봐주려하고 있다고 맞서고 이들은 신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LA의 한성직자는 스스로를 칼빈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만약 신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일반인들은 만약 신이 선하다면 왜 악을 허용하느냐고 묻고 프로세스 신학자들은 보다 용이한 입장에서 신을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왜 신이 고통을 허락하는가」가 아니라 「왜 신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따라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되 모든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제받으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렸다.

또 오렌지카운티의 한신자는 이 성직자의 설명을 수긍하면서도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으며 그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현명하다고 풀이했다.

스웨터 안 칼이 번쩍이고…

"햇빛이 그립다"…이철수씨 告白시리즈③

교도관이 올때까지 살아남을 保障도없고 無意識속 벌떡 일어나 니드·햄과맞붙어 "용맹성 보이려했다"凶惡犯으로 몰다니…

니드햄이 듀엘교도소로 왔을때 그는 내가 「와칭」 갱두목을 죽이고 이곳교도소에서 갱단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 니드햄이 유유히 우리쪽으로 오는것이었다.

더구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웨터를 길게 늘여 입고 있었다.

필경 품속에 무기를 숨겼겠지. 그렇지 않고서 스웨터를 끼어 입을리 없지 않은가.

나는 이대로 무작정 앉아서 죽을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니드햄을 노려 보았다.

마주 걸어오는 니드햄의 스웨터안쪽에 무엇인가 번쩍였다. 『칼을 숨겼구나!』라고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가 내눈앞에 크게 다가오면서 몸을 비트는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칼을 빼는 것이라고 느꼈다.

무의식중에 나는 그와 맞붙어 싸웠다. (이철수씨는 니드햄이 어떻게 해서 죽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는 것 같았다.)

니드햄은 스웨터속에 칼을 감추고 나를 해치려 했는 것 같다. 그의 성격이나 행동을 미루어 보아도 수긍이 가는 것이었다.

솔직이 처음에는 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전에 나를 듀엘교도소에 수감시킨 차이나타운의 망령이 원망스러웠다.

싸움은 많이 해보았으나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은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영화를 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무서운 벌정도는 좋으나 죽이는 것만은 어쩐지 싫어했던 나였다.

그러한 내가 니드햄을 죽였다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사형선고에는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의 범인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중처벌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내가 하늘에 맹세하고라도 차이나타운갱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드햄과의 싸움이후의 나날은 나에게 있어 종말을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죽이지도 않은 차이나타운 사건에서 종신징역을 선고한 미국재판소가 이번에 니드햄사건으로 더욱 나를 몰아부칠것을 생각하니 원통스러웠다.

그들은 나의 정당성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내가 사전현장에도 없었는데 억지로 나를 범인으로 만든 사람들이 니드햄과 실지로 싸운 나를 정당한 입장에서 보지 않을것은 틀림없었다.

실지로 옥중사건 재판때 그것이 나타났다.

1979년 1월15일 처음으로 스탁턴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이사건을 취급한 산·호킨카운티의 커네트·말레이코검사는 나를 계획적인 범인으로 몰고 갔다.

말레이코검사는 나를 가리켜 『와칭갱단 입예택을 대토상에서 냉혈적으로 죽인 범인으로 교도소에 와서 또다른 갱단두목급을 죽음으로써 용맹성을 나타내려 했다』면서 흉악범으로 몰아쳤다.

지금 제1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나를 본다면 말레이코 검사는 무엇이라고 할런지.

니드햄과 싸움을 벌이기 전 운동장을 감시했던 두 교도관은 니드햄이 『자! 이제 시작해볼까』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와 같은 말은 죄수들간의 충돌하기 전에 도전하는 언어로 쓰여진다고 증언했다.

바로 이증언에서 누가 도전했는가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내가 니드햄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인간으로 각본을 꾸며 나갔다.

그들은 배심원들에게 내가 와칭갱단과 숙적관계에 있는 조·팡갱단 멤버로 입예택을 죽였다고 하면서 감옥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아리안형제파(니드햄소속)와 숙적인 뉴에스트라·훼밀리아파에 합세해 니드햄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가지 모두가 사실이 아니었지만 검사들은 그럴듯한 가설을 내세워증거라고 떠들었다.

나는 듀엘교도소 갱단의 일원도 아니며 그들의 사주를 받아본 적도 없다.

내가 먼저 니드햄을 미워한 것도 아니며 내가 도전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소수의 인종이 백인종이 다수인 옥중갱단 두목급을 죽이려 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죽을 수 없는 처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일뿐이다.

당시 운동장에서 내가 교도관을 부르고 그교도관이 운동장에 올 때까지 내가 살아남는다는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도소 당국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계속〉

여인의 다리를 훔쳐보다니…

저런, 지나가는 여인의 다리를 훔쳐보다니. 사실은 미 휴스턴시의 한 건축공사장 담벽에 그려진 커다란눈의 포스터옆을 지나가는 여인을 찍은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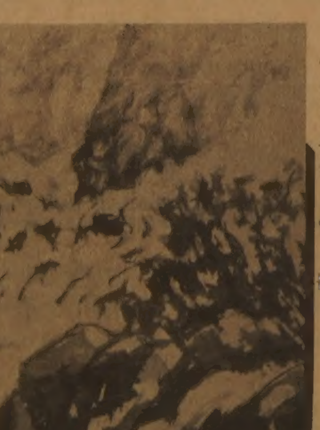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토: 오전11시~오후3시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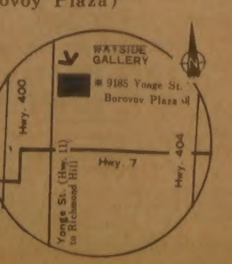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서울사대부고
망년파티
한해가 또 저무는군요.
해가 가기전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보고자, 아래와 같이 모임을 마련하였아오니, 동창 내외분은 물론, 자녀와 부모님들 모두 모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12월 3일(금) 오후7~10시
장 소 : 한 인 회 관
회 비 : 정기회비 이외에는 없음.
연 락 처 : 960—5736, 844—0178 김인규
준비사항 : 가족단위 특기자랑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 김 현 모

동양화전시회안내



금년봄 이주한 운파 이정복씨가 관직중 틈틈히 닦아온 필치를 담은 작품으로 동양화 전시회를 갖기로 했읍니다. 우리 고장의 향취를 화폭에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셔서 따뜻한 후의로써 격려하여 주시면 우리가 협찬하는데 더욱 그 의의가 깊어질까 합니다.
일 시 : 1982.11.26(금요일)~12.4(매일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 : Wayside Gallery
9185 Yonge St. (Borovoy Plaza)
☎ : 886-1667



협찬 : 토론토한인회관이전건립위원회
서울대학농대동창회
경기고등학교동창회

한국일보

男女차별 法令·制度등 정리
女性발전研究院 추진
育兒2명까지 休職制
공무원手當·醫保 妻家직계도
黨政합의

정부는 인구억제에 장애요소가 되고있는 男兒選好관념을 불식시키기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관습등을 과감히 정리해나가는 한편 國立女性發展研究院(가칭)을 새로 발족시켜 여성의 사회적지위향상을 선도하고 幼兒보호시설 확대와 育兒休職制등의 도입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보험시혜와 공무원가족수당 지급에도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研究院, 이번國會서…休職制, 내년초 立法

4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적지위향상과 능력및활동분야개발, 취업기회 확대등을 전담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같은 성격의 정부(보건사회부) 산하 독립기구로 신설되는 국립여성발전연구원은 오는 84년1월 발족을 목표로 연내에 職制협의를 완료, 83년중 예산조치및 청사신축완료등 설립준비 절차를 밟게된다. 국립여성발전연구원은 보사부산하기구인 여성복지원과 부녀직업보호소를 흡수통합하게되며 기구설치에 관한 법적조치사항은 議員立法으로 이번 국회중에 처리키로 정부·여당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방안의 하나로 새로 도입되는 育兒休職制는 취업여성들이 출산을 할경우 1년의 育兒기간동안 休職을한후 직장에 복귀할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育兒休職制의 법제화에 관련된 법개정안(또는 법안)을 이번 회기중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등을 고려, 이를 연기키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초에 이를 법제화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育兒休職制를 실시할경우 인구억제를 위한 소자녀가정 우대방침에 따라 2명의 자녀까지만 育兒休職의 혜택을 주고 그이상의 자녀를 출산할때는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사실상 2명이내로 제한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男兒選好관념 불식을위한 남녀차별철폐와 여성취업확대등을위해 호주제도, 상속제도, 친족관계등 가족법상의 각종차별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법의개정을 광범하게 검토하고있으며 혼인연령의 인상, 가정의례준칙및 의속에 포함시키는 문제, 공무원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처가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하고있다. 또 의료보험의경우 가입자의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4일하오 民正黨의 李鍾贊원내총무(右)와 鄭在哲豫決위원장이 實名制是非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豫決委의 운영방안을 협의하고있다.

11人小委 계속空轉
民韓 "구성 合意사실 없다" 맞서

국회財務委는 4일상오 朴泰俊위원장주재로 民正, 民韓, 국민당과 議政同友會간사회의를 열고 금융관계법안심사 11人小委를 구성, 5일부터 4일간 금융實名去來法案과 은행법개정안등의 심사활동에 들어 가기로 합의했으나 民韓黨이 합의를 번복, 종래의 반대주장을 다시들고나와 계속 空轉을 거듭했다.

간사회의가 끝난뒤 民正黨의 鄭順德, 국민당의 李聖秀, 議政의 李洪鍾의원등은 『5일 상오10시 재무위전체회의를 열어 小委구성을의결하고 이날부터 4일간 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民韓黨의 金台植의원은 『小委의 운영일정을 간사차원에서 검토만했을뿐 합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의를 부인, 混線을 빚었다.

豫決委 3시간 停會
民韓 實名制전제 豫算등 심의거부로

국회는 4일하오 豫決·保社·內務委등을 續開, 정책질의와함께 일반法案심의를 했다.

이날 豫決委는 전날에이어 회의벽두 實名制를 전제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民韓黨의원들이버텨 3시간이나 회의가 中斷되다가 이날하오늦게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豫決委 民韓黨의원들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은 實名制의실시를 전제로 편성 제출됐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稅法개정안도 이에 따른것이라고 지적, 『實名制의 무기연기가 확실해진 현시점에서 예산안의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民韓黨의 金銘圭·睦堯相·朴寬用·洪思德·金炯來의원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實名制가 실시되지않을 경우의 예산심의는 先세입 後세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세입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증가되며 ▲여기에서 빚어지는 세입·세출의 오차는 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竣成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實名制법안과 금융實名법안은 현재 財務委에서 심의중에있어 그결과를 예측할수 없으며 국회의 심의결과에 따를뿐』이라고 말했다.

停會중 民正黨과 民韓黨은 金부총리의 답변내용을 두고 『일체 加筆할수없다』, 『정책방향의 변경이 없다는것을 추가하자』고 맞섰으나 결국 金부총리가 『정부가 제출한 實名去來制나 예산관계 부수법안은 원안대로 심의해주기 바라며 정부는 국회의 심의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內務委 경찰공무원법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심의에서 徐淸源·趙鍾益(이상民正)·趙炳奎의원(국민)등은 경찰공무원법개정안에대한 정책질의를통해 ▲경찰의계급정년제실시에 따른 경찰업무의 문제점 ▲戰警에 軍현역법을 적용하는문제 ▲전경에대한 교육문제등에 대해따졌다.

盧泰愚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무경찰은 차량운전 유치장 악대 상황실 교통정리 등의업무에 종사하게되며 강력사건수사등의 활동은 직업경찰관이 맡도록하겠다』고말하고 『의무경찰의 부작용도 미리예방하는 방안을강구중』이라고밝혔다.

"오늘의 世界經濟는 銃聲없는 戰爭"
좋은商品이 脫不況
全대통령, 尾浦 수리造船所준공식 치사

【蔚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4일 『오늘날의 修理造船은 新造船에 비해 附加가치가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海運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또 이분야에서의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적절한 業種』이라고 말하고 『우리 造船업계가 이룩한 현재의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업과 기술진및 근로자, 그리고 관계당국이 마음을 합쳐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더욱더 노력하는 한편 受注활동에 있어서도 造船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있도록 그 영향력을 더욱 충실하게 길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慶南蔚山市 鹽浦洞에서있은 現代尾浦 대단위修理造船所 준공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造船업계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것은 비단 일개기업의 문제만이아니라 국가적인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세계경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헤쳐 국력신장을 기필코 도모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절박한 처지이기때문에 우리의 모든 산업역군들이 국력신장의 前衛라는 사명감을 굳게 지니고 세계라는 경쟁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흘려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방향과 진로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의 자세에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더없이 막중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일깨워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오늘의 세계경제를 銃聲없는 전쟁상태라고 비유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황을 헤쳐나가는 秘訣은 남의나라 상품보다 더욱 質높은 우리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있다』고 지적, 『따라서 창의와 성실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선도적인 기업을 오늘날 우리 경제는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이 끝난후 全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준공된 도크의 펌프시동단추를 눌러 注水시키고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았다.

電子기술硏 시찰

【龜尾=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4일 하오 現代尾浦대단위수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뒤 歸路에 慶北龜尾工團에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시찰, 半導體생산시설및 생산工程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과 함께 이연구소 半導體생산시설 가동기념테이프를 끊고 金定德연구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과 교육훈련 소형컴퓨터개발등에관해 보고를받은뒤 半導體회로설계와 반도체素材인 마스크및 웨이퍼제작가공, 반도체검사시험과정등을차례로 둘러보았다.

美 共和黨, 下院26·知事7석 잃어
"對議會전략 陣痛"
中間선거 최종결과

【워싱턴=李文熙특파원】레이건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집권공화당은 4일하오(한국시간) 개표가 완료된 중간선거에서 上院의석의 현상유지에는 성공했으나 下院에서 26석을, 州지사선거에서는 7석을 각각 잃었다.

이로써 美의회및 주지사의 의석분포는 상원이 공화54對 민주46, 하원이 공화 1백66對 민주 2백67 (조지아주2석은 오는 11월30일 선출예정), 주지사는 공화 16對민주34로 다시 개편되게됐다.

레이건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원지배에는 성공했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절대다수를점하고 進步派의원들이 대거승리함에따라 그동안 레이건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어왔던 공화당과 민주당보수파간의 연합세력구성을 재검토해야하는등 對議會전략에서 상당한 진통을겪을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회복지비를 대폭삭감하고 대규모감세, 국방비증액을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이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4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쿠웨이트韓人會김수길會長 外 5천2백弗
조계종韓國관음회김상봉會長 外 2백3만원
新星開發(株)申裕鎬대표 外 2백만원
明洞忠武商街(株)張基弘대표 外 1백11만원
相慶物産(株)李相玄대표 外 1백만원

▲在쿠웨이트한인회=美貨5천2백20달러 (한인회장 김수길씨=5백달러, 실업인 방욱씨=2천〃, 진출건설업체협의회=7백〃, 실업인협의회=7백〃, 선물가게협의회=5백〃, 진출상사협의회=3백70〃, 식품업체협의회=3백〃, 회=3백〃, 한국인학교어린이 맹예리·맹승섭=1백50〃) ▲대한불교조계종한국관음회 김상봉회장외 신도일동=2백3만3천5백원

在말大林 기능사원 1천3백弗
在사우디 김재한씨 1천弗
在스리랑카韓人會 9백20弗
在스리랑카韓人敎會 3백弗
在桑港韓美노인회 6백弗
在라이베리아僑民會 4백弗
在오만 금봉호船員 4백弗

▲新星開發(株)代表理事 申裕鎬씨=2백만원 ▲明洞忠武商街(株)代表理事 張基弘씨=66만4천원 ▲明洞忠武아케이드商人一同=36만9천원 ▲서울운동장앞地下商街商人一同=7만8천원 ▲相慶物産(株) 대표이사 李相玄씨外 임직원一同=1백만원 ▲在말레이지아 대림산업(株) 기능직사원 一同=美貨1천3백30달러 ▲在사우디젯다건축자재업체 Ahmed N. Est. 근무 김재한씨=美貨1천달러

▲在스리랑카 한인회(회장 최홍식)=美貨9백20달러(정민길대사외공관원=스리랑카貨4천7백40루피, 코트라 이원배관장=1천〃, 덕성무역 최홍식이사및 직원一同=4천2백〃, 경덕상사 이한우이사및 직원一同=4천2백〃, 대한항공 이종인지사장및 직원一同=2천〃, 두산및 동양고무 현규탁씨, 장영복지사장및직원一同=1천〃, 효성물산박교우지사장=1천〃, 주용기씨=1천〃, 김명선씨=1백〃) ▲在스리랑카 한인교회=美貨 3백달러 ▲在桑港韓美노인회(대표 박찬신)=美貨6백달러 ▲在라이베리아 교민회(회장 한효섭)=美貨4백20달러 ▲在오만 조업제202 금봉호선장 김용호씨외 선원一同=美貨4백28달러 ▲在오만 한인회회장 허대열씨=美貨2백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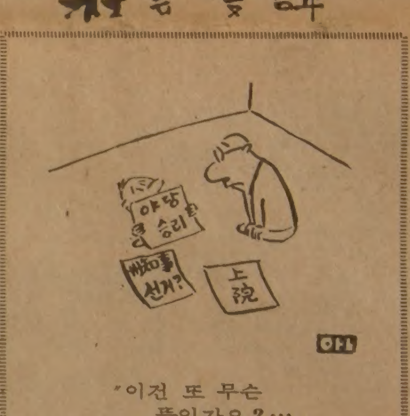
◇최홍식씨

◇김상봉씨

◇서울明洞忠武商街대표·商人대표

在오만韓人會會長 2백弗
在카라치韓人15명 2백弗
在과테말라박재국씨 2백弗
城津普信학교동창회 22만원
建大무관후보생 21만원
三淸洞2지구現地改良推委 11만원
吉音洞誠一섬유 10만원

社會漫評



"이전 또 무슨 뜻인가요?…"

地平線

『건전한 身體에 건전한 精神이 깃든다』는 말은 단순한것 같지만 이야말로 이세상에서 가장 幸福한상태를 나타낸것이다』—이말은 英國의철학자존 로크가 『교육에 관한 몇가지 생각』이란 책에 쓴 것이다. 정신과 신체의 調和的發達, 즉人間에 잠재된 천부의 가능성을 調和있게 발달시켜 사람다운사람을 만들었을때 그는 더 바랄것없는 행복한 인간상태에 이른다는 뜻이다. 오늘날 『全人敎育』이라고 일컫는 과제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기르는 요구를 뜻한다. ▼워즈워드의 詩 가운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귀절이 있다. 어린이속에는 어른의 모든것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어릴때부터 그個性이 존중되고 兒童性이 개발되며 어른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릴적부터 사람은 『인간의 모든것』이 되도록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권리가 있는것이다. 全人敎育實施의 기본발상도 이런데서 출발한 것이다. ▼원래 사람을 처음으로 『心身一元論的』 그리고 『전체적形態』로 보게된것은 19세기말엽에 이르러서다. 그이전까지는 身體와 精神으로 분리해서 보는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하버드·스펜서가 『敎育論』을 저술하면서 副題로 『知育·德育·體育』이란말을 쓰면서 全人교육의 구체적 형태는 잡혔다. 스펜서는 敎育의 목적을 『完全한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정, 『知·德·體』가 겸비된데서만 완전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오랜동안 科擧制度에서 『文』과 『武』를 분리하고 兩科중에서도 崇文의 경향을 조장해왔다. 이는 우리교육풍토를 主知主義·精神主義로 흐르게하여 完全한人間을 형성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근자에는 지나친 個人主義·물질추의·배금사상·核가족사조등의 만연으로 人道와 人間性의 퇴락현상마저 없지않게되었다. ▼작년말 전국敎育者대회치사에서 全斗煥대통령이 우리후계세대들을 中興의 새民族史를 엮어나갈 주인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선 『知·德·體를 겸비한 全人完成의 교육을 다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것도 『全人敎育』의 긴요성을 明示한것이었다. 學校교육은 이중요과제를 가장 옳고 효과있게 풀어 자라는 세대들의 人間性을 全機能的으로 개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런뜻을 새기며 5일부터 大韓私立중고등學校長會서 주최한 『全人敎育 모형개발에 관한 研究集會』(서울 大光고교)가 열린다. 새시대·現代社會에서 인간의 기계化·劃一化를 막고 知識교육에 주력하면서도 身體的으로 강건하고, 정서적으로 安定되며, 意志力과 창의력이 용솟음치는 참된 인간을 어떻게 교육해낼 것인가를 토의하리라 한다. 바로 우리 계승세대들이 취해야할 포즈에 관한 토의가 될듯하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30AM~7PM
금 9:30AM~8PM
토 9:30AM~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충국인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종합보험
김홍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돈 많이 쓴 후보들 落選

美中間선거 스케치

1千만弗씩 동원한 세候補 모두苦杯

레이건人氣는 여전, 84년再選 가능성

○…이번 中間선거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뿌린 많은 후보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 화제.

상원의원선거에 출마한 마크·데이튼(미네소타)후보, 주지사선거에 출마한 루이스·레먼(뉴욕)후보, 현직주지사 윌리엄·클레멘츠(텍사스)후보등 이번 선거운동기간중 가장 많은 자금을 동원한 후보들이 모두 낙선….

민주당후보로 데이비드·디렌버거상원의원에게 도전한 데이튼후보는 무려 1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전해졌는데 이는 1표당 59달러씩에 해당하며 지난 78년선거에서 7백50만달러를써 재선된 제시·헬름즈상원의원(共·노드·캐롤라이나)의 기록을깨뜨린 것.

뉴욕주지사선거에 출마한 레먼(共)후보는 1천1백80만달러를 선거운동으로 날렸으며 클레멘츠 텍사스 주지사는 재선을 위해 1천1백50만달러를 썼으나 5백20만달러를 쓴 민주당의 도전자 마크·화이트 후보에게 패배。

이번 선거에 동원된 선거자금은 약 3억달러。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은 2일 실시된 미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지만 오는84년의 대통령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2일 투표를 끝낸 유권자들을 상대로 NBC TV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많은유권자들이 레이건대통령에게 정치·경제목표를 달성할 수있도록 시간여유를 좀더주어야 한다고 말해 레이건대통령에대한지지를나타냈다。

현재 레이건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아직레이건대통령에필적할만한 후보자는나타나지않고있다。

落選운동공세 실패

○…미국의 보수단체인 전국보수정치활동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민주당의원들을 낙선시킬 것을 목표로 5백만달러의 자금을투입, 공세를 폈으나 겨우1명만을 낙선시키는데 그쳤다。

女性후보 人氣잃어

○…이번선거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여성후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상원선거에 출마한 3명의 여성후보와주지사선거에나선 여성후보2명이 모두 낙선。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주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의 4선의원인 밀리센트·펜위크여사가 민주당의 프랭크·로텐버그후보에게 패배。

여성의원으로서는 최고참이었던 마거릿·헤클러하원의원(共·매사추세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색적인일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후보를위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던 美최대의 여성단체인 전국여성기구(NOW)가 펜위크여사대신 남성인 로텐버그후보를 지지한 것。

○…이번선거에서는 현직 흑인하원의원 17명이 전원재선됐으며 적어도 4명의 흑인후보들이 하원선거에서 당선, 흑인의원들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CBS방송은 이번선거의 흑인유권자투표율이 51%인 것으로 방송은 집계했으며 투표에참여한 흑인유권자중 85%가 민주당후보에 표를 던진것으로 나타났다。

콜럼비아 州가능성

○…워싱턴시가 들어 있는 콜럼비아특별구가 미국의 51번째주인 뉴콜럼비아주가 되는데 필요한 또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워싱턴시의 유권자들은 2일 인구 64만의 콜럼비아특별구가 주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줄 주헌법을 53%대47%로 승인했다。

콜럼비아특별구가 새주가 되기위해서는 의회로부터 주헌법을 승인받아야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남은 가장큰 장애。【華盛=聯】

北傀·蘇관계 危機

◇터키領事館 복면의人質犯 3일 西獨퀼른주재 터키영사관에 난입한후 30여명을 인질로 잡고있는 일단의 터키좌익 무장괴한중 한명이 권총을손에들고 복면을한채 영사관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있다。【퀼른4日UPI電送=聯合】

最近 蘇관리들 訪韓후

【파리AP=聯】중공과 북괴가 그들의 우호관계가『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하고있는 가운데 소련과 북괴간의 관계는 위기를향해 치닫고 있는것 같다고 많은 西方관측통들이 3일 말했다。

이 관측통들은 소련의관영 타스통신과 소련문화성의 대표등 고위 소련관리들이 최근 한국을방문한뒤 북괴언론기관이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데 뒤이어 그같이 말했다。

중공공산당최고지도자들인 鄧小平과 胡耀邦은 지난4월 平壤을 방문했으며, 북괴 金日成은 지난9월 北京을 방문했는데 중공과 북괴는 金日成의 北京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서로 주장했다。

미확인보도들은 북괴의 현 對蘇강경노선을 계속 밀어나가고있는 사람은 金日成의아들이자 그의후계자인 金正日이며, 북괴인민무력부장 吳振宇가 이『강경노선』을 지지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보도들은 또 미래의 북괴주석 金正日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중이며, 그희생자들중에는 副主席金一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려졌다고전했다。

한편 한국과 북괴를 교차승인하는것이 궁극적인 한반도재통일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임을 믿는 국가들이 세계도처에서 보다 늘어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견해는 특히 클로드·세이숑 프랑스외상에 의해 표명되고있다。

세이숑외상은 프랑스의 북괴승인이 사회주의국가들에 한국을 승인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지모른다는 견해를 표명한바있다。

人質 모두석방…投降

西獨터키領事館습격범、亡命언질

【퀼른(西獨)聯合=聯】서독 퀼른주재 터키영사관을기습、인질들을 억류하고있던 터키출신 마르코스·레닌주의과격파 요원들이 4일 사건발생16시간만에 잔여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경찰에 투항했다。

경찰은 터키군사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영사관을 점거했던 9명의 데브립시·솔단체소속 무장특공대가 이날 정치적망명신청이 가능하다는 西獨정부의 언질을 받은후 투항해 왔다고 밝혔다。

"美、東西무역 새構想"

訪美 伊수상 "對蘇禁輸조치 곧解除"

【워싱턴UPI=聯】訪美중인 조반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은 3일 美國의 對蘇가스관장비 금수조처를 둘러싼 美·西유럽간의 분쟁이 해결점에 가까와졌다고 밝히고 미국의 對蘇금수조처가 수일내에 해제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對蘇가스관건설장비 금수조처를 둘러싼 미국과 다른 서방국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한 스파돌리니 수상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과 만난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파돌리니 수상은 미국이 東西무역에관한 새로운 구상을 곧 西유럽국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서방의 분열을 초래한 가스관장비분쟁의 해결을 향한 進一步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수일내에』對蘇장비금수조처를 해제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革命을 기념

中共 20년만에 行事

【北京AP=聯】중공은 오는 6일 北京의 人民大會堂에서 소련의 10월17일(러시아曆)혁명을 기념하기위해 전례없이 성대한 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北京주재 외국외교소식통들이 3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중공당국이 적대국인 소련의 혁명기념일을 경축하기위해 이같이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갖는것은 거의 2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공과 소련은 최근 北京에서 양국관계개선을위해 3년만에 첫공식회담을 가졌으며 이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에 만족한다고 밝힌바 있다。

美洲서 되살아난 獨立의魂

大韓人同志會서 성금 보내

독립운동자금 조달정신이 40년만에 美洲대륙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젊어서는 독립운동자금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재미동포노인들이 이번엔 독립기념관 성금모금에 앞장서고 있다。

『大韓人同志會北美總會』회원인 宋철씨(90)등은 9일 독립기념관건립에 써달라고 1천5백달러를 본사 로스앤젤레스支社에 기탁했다。

宋씨등은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사람들이지만 3·1운동의 여세를몰아 1921년 7월5일 李承晩전대통령과함께「大韓人동지회」를조직、독립운동에 일익을 담당했던 독립유공자들이다。그러나 60년이 지난지금 동지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은 LA의北美총회 뿐이다。

北美총회창립당시 70여명의 동지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宋철씨 李범영씨(90) 徐복덕씨(75)등 8~9명정도。

宋영창동지회총무는『조국이 독립된 후로는 노인복지장학종교사업등을 남모르게 펴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盧영재여사(88)도 1천달러를 들고 찾아왔다。【LA支社】

記者의 눈

"소곤 소곤" 民正대화

實名制波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기치 않은 최대의 이슈로 불붙고있다。

民正黨은 불과 3개월전에 결정한 黨論을 스스로 거의1백80도로 바꾸는 진통을 겪었고 동시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꺾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實名制 留保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교육세 波動이나 다른 어떤 이슈에도 뒤지지 않은 커다란 사건이다。

그래서 他黨의원들도마찬가지겠지만 특히「逆轉의 주인공」인 民正黨에 소속한 의원들은 무엇인가 할말이 있는것같다。그동안 어떤 경위로 逆轉드라마가 펼쳐졌는지도 궁금하다。

의원들은 크고 작은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왔다는 前例에비추어 이번實名制파동에 즈음해서도 곧 議總이 소집될 것이라는 기대를하고 있었다。

지난6월 黨職개편뒤 高唱되어온 黨內 민주주의의 분위기도 아직 살아있으리라는 기대도있어 民意의소지를 유감없이 전달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1백52명의 전체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議總은 요란스럽고 시끄럽다는 견지에서 각常委별로 대화를 나누는「조용한 방법」을 택했다。

議總에서「실시연기」라는 黨論을 결의하여 밀어붙인다는 인상을주고 他黨을 자극하여 政局을 梗塞시킨다는 우려도 議總대신 조용한 分班토의를 택하게 된 요인중의 하나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大事件」을 두고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自重하는 분위기 때문인듯하다。實名制를 실시해야한다고 떠들다가 불과 수개월만에 안해야한다고 외쳐야하는 마당에 굳이 큰 장소에서 큰소리로 할것은 없다는것이다。

더구나 實名制를 내년부터 당장 실시해야지 왜 이제와서 흐려졌느냐는 여론도 상당히 있고 연기조치가 돈있는 사람을 보호하기위한것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대화가 너무 조용하고 비공식적이되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아들을수가 없다。일부 국민들이 갖고있는 強行여론도 나오고있는지, 실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궁금했던 이상으로 일반국민들은 궁금하다。작은 소리로 소곤 소곤 의원들끼리만 얘기를 나눌게 아니라 국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黃昭雄기자】

스페인 師團長 출근중에 被殺

怪漢 저격받고

【마드리드聯合=聯】마드리드 교외에 주둔하고있는 스페인 최고정예사단 브루네테부대의 사단장 빅토르·라고·로만소장이 마드리드시내에서 출근도중 괴한들의 기관총 저격을받고 사망했다고 스페인군 소식통이 이날 밝혔다。

이사건은 스페인을 방문중인 로마교황요한·바오로2세가 마드리드를 출발, 마드리드 남서쪽에있는 聖地 구아다루프를향해 떠난지 불과 1시간만에 일어났다。

이란·이라크戰확대

【런던·바그다드AP·聯=聯】한동안의 소강상태를깨고 이란과 이라크軍은 3일 또다시 전폭기와 탱크등을 동원한 치열한공방전을 벌임으로써 26개월째로접어든 양국간의 전쟁은 새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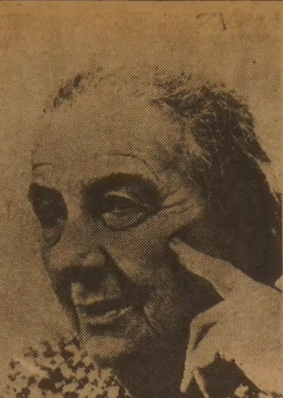
이、核彈2백개保有

【빈PTI=聯】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즉시 이용할수있는『지하배치폭탄』전략이론에 따라 2백개의 核彈頭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미국으로하여금 그들에게 재래식무기를 계속 공급하도록 하는데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최근 발간된 한 책자가 주장했다。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現代史의 主役들★ <14>

골다·메이어



◇골다·메이어

母性愛같은 防衛본능에 直線的

이스라엘首相과 美대통령은「특별한관계」

미국과 이스라엘을 매우 강력한 유대로 맺어주는 한가지 특징을 양국은 공유하고 있다。두나라 모두 유럽에서 몰려온 유태 이민의 종착점이었고 유태 난민의 天國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어디에 살든 이 유태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정신적 감정적 결집력때문에 이스라엘 首相과 미국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를 가질수 있게 된다。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관계를정치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는 서로의 理想과 전략적 고려가 포함돼 있고 정치적 배려도 개재돼있음이 사실이다。그러나 더 본질적인것은 수많은 미국국민이 이스라엘은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모든 미국 대통령은 이점을 잘안다。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한다。미국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결코 他國일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골다·메이어도 나에겐 세계 어느 지도자와같은 의미를 갖는 단순한 다른나라의 지도자일수 없었다。우리 두사람은 1969년에 執權했다。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두달이 지나 그는 首相이 됐고 내가 사임하기 두달전까지 在任했다。사실상 골다·메이어는「나의」이스라엘 首相이었고 나는「그의」美國대통령이었다。

골다·메이어와 내가 執權하고있는동안 양국관계는 어려운때도 있었고 때때로 시들해진적도 있었다。두사람 관계가 긴장됐던때도 있었다。골다·메이어는 때로 내가 준비한것보다 더많은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때로는 내쪽에서 골다·메이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워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취한일도 있었다。

우리는 때로 큰 도박을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었고 폭발위험을안고 있는 중동분쟁이 동서관계、산업세계의生命線、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어느 쪽에서든 한 발 잘못디디면 양쪽모두에 치명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경계심을 갖고 주시했다。또한 중동사태에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분쟁을 다루는 견해차이가 클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위기를 헤쳐가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의유대를 강력히 다져 나갈 수 있었다。시련을 극복할 때의 지도자를 보면 그가어떤 인물인가를 잘알수 있다。

조르지·퐁피두는 언젠가 골다·메이어를『무서운여자』로 묘사한 일이있다。확실히 골다·메이어는 퐁피두의 표현보다 더 강한 인물인지모른다。골다·메이어는 내가 公私를막론하고 35년간 국내외여행을 통해 만난 男女중 가장 강한 개성의 소유자였다。

벤구리온이 본질적으로 역사적 시각에서 힘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면 골다·메이어는 天性的으로 힘을 타고났다。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나라에 대해서는 강한 국가방어본능을 지니게 마련이지만 골다·메이어의 그것은 유별났다。자식에 대한 母性愛처럼 맹렬하고 본능적이며 강했다。골다·메이어에 있어 이스라엘은 자신의 國家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골다·메이어에있어 이스라엘은 국민적 소속감을 초월한 대목적 자체였다。

어떤 지도자들은 음모의 명수여서 기만의 그물을 치고, 조금만 방심하면 장래의 약속으로 착각 빠뜨릴 암시를 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항상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그들은 강제력을 행사하며 끊임없이 밀고 미고 책략을 쓴다。린든·B·존슨에겐 이런것들이 후천적 속성이었으며 프랭클린·루스벨트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물이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음모를 통치기술의 核으로삼았으나 골다·메이어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골다·메이어는 직선적인 인물이었다。그에관한 한 의심스러운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그렇기때문에 골다·메이어는 감당키 어려울만큼 단호했다。그의입장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때문에 그런지 의문스러운점이 조금도 없었다。

골다·메이어는 노동으로 평생을 보낸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몸은 허리뼈가 부서지도록 육체노동을 했던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고 얼굴은 정신적 긴장을 나타내주었다。그러나 사진이 포착하지못한 따스함이 가끔 얼굴에 나타났다。

비록 치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만 감상적인 태도를 갖추지않고 그대로 보여주기도했다。브레즈네프도 감상적인건 마찬가지 같았으나 그는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눈물을 터뜨려 호감을 사려했다。

브레즈네프의 감상은 한계가 분명해서 몇시간후 으르렁거리는 대결자세로 돌변했다。골다·메이어의 감상은 자신의 일부분이었다。그의 감상과 단호함은 같은 源泉에서 나왔다。

협상에 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보호하기위해 협상을 벌이는지에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태도가 단호했다。그의 따스함은 자연스럽고 아주 인간적이다。

◇1969년 백악관을 방문, 공식만찬에 초대된 골다·메이어。어머니처럼 조국을 사랑한 그는 단호함과 따스함을 함께 갖춘 지도자였다。

1969년 이스라엘首相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을때를 나는 잘 기억하고있다。골다·메이어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방문이었다。그는 8살때 처음 소련에서 미국에 이민와 성장했으며 1921년 팔

막노동자 모습속에 따스한 감상

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까지 밀워키에서 교육을 받았었다。우리가 마련한 공식만찬에서 해병악대가 연주한 이스라엘국가와 미국 국가를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철철 흘렸다。

만찬후의 여흥으로 아이작·스턴과 레너드·번스타인의 특별연주를 준비했었다。나의 아내와 나사이에 자리잡고 앉은 골다·메이어는 음악에 흠뻑젖어 있었다。연주가 끝났을때 그는 충동적으로 벌떡 일어나 공연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껴안았다。

수상 재임기간중 그가 가장 괴로와한것은 1973년 욤·키푸르전쟁때다。이스라엘의 敗色이 짙었던 것이다。

나는『공중을 날수있는것이면 모든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쟁물자를 이스라엘로 긴급수송하라』고 명령했다。

골다·메이어는 나중에 다음과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그공수작전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기를 드높여주었을뿐아니라 소련에게 미국의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읍니다。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수 있었읍니다。미국 수송기가 리다비행장에 착륙했다는 소식을듣고 나는 전쟁이 터진후 처음 울었읍니다』

다음해1월 이집트—이스라엘의 격리협정이 발표된후 나는 골다·메이어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당시는 워터게이트사건이 미국내 뉴스를 주도하고있을 때다。통화가 끝날무렵 골다·메이어는『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야합니다。그리고 좀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했다。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낙엽이 지고 스산한 가을이 스쳐가고 있읍니다. 못다한 일들이 쌓여지고, 우울과 권태만이 낙엽처럼 딩구는데 아늑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그라나다"에서 가을을 음미하세요.
산뜻한 왜식과 깔끔한 한식이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따뜻한 "정종"에 "오뎅", "사시미","스시", 덴뿌라, 쓰끼야끼, 생선구이등과 여러가지 한식으로 건강을 돌보세요.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GRANADA
영업시간
오전 8시~새벽 1시
토요일 : 12시~새벽 1시
※일요일은 문닫습니다.
파킹장 오후8시 이후 무료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醫藥분업」 對策밝혀라

常任委 질의·답변

"皆保險 86년부터 가능한가" 질의
"實名制國會결의 따르겠다" 답변

國會錄音

豫決委

▲金炯來의원(民韓)(의사진행발언)=實名制는 失明됐다. 5천5백억원이 國債발행을 하지않기위해 여당측도 稅法을 손질하려한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등 각종稅法을 원상회복시킬 경우 歲入규모는 엄청나게는 어난다. 實名制채택여부에따라 예산의 책정여부도 變數를지니고있다. 實名制실시여부가분명치않은채 예산심의를 한다면 이는우리스스로를 속이는것이다. 국회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행정부의재량을확대시켜주는 결과를빚는다. 예산안을 재편성하든지 實名制실시여부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金俊成부총리답변=정부는 재무위에 7개稅法개정안과 금융實名법안을 제출해 재무위에서 심의중이다. 이미 제출된 稅法개정안및 實名去來法案이 결정되고 나면 세출에 자동적으로 조정작업이 있게된다.

정부는 일단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결과에 따를 뿐이다.

과거에도 歲出案을 먼저내어놓고 세입규모가 결정되면 조정해온것으로 알고있다. 세출안을 심의해주면 감사하겠다.

▲洪思德의원(民韓)=과거의 관례대로 세출안 심의를 먼저 해달라는 얘기같은데 과거는 정부 여당이 單一案을 가져왔기때문에 異見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實名制실시를 전제로 예산을 짰고 民正黨은 실명제실시를 연기 또는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을심의한다는것은 세입에 관한한 완전 虛構일뿐이다.

▲金副총리=實名去來법안은 재무위에서 심의중이다. 어떤 규모로 변경될지는 정부로서 예측할수없다. 본예산을 그대로 심의해주고 稅法등에 변화가 오면 그때가서 조정할수 있다. 심의를 각각히 부탁드린다.

▲朴善用의원(民韓)=재무장관이 국회재무위에서 연일 이문제에 관한 소신을밝혔는데 부총리는 實名制에대해 어떠한 소신을갖고있는지 이자리에서 밝혀라.

▲郭正出의원(民正)=실명제실시 여부로인해 새해歲入이나 歲出에 변동이 있는가없는가.

▲金副총리=實名制는 정부가 제출한 案으로 발표당시 기획원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충분히 밝혀바있다. 현재 實名制와 稅法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기때문에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는지 알수없다. 實名制실시가 보류될 경우 세입이 얼마만큼 달라질는지 지금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다.

▲睦要相의원(民韓)=이번예산은 實名制실시를 전제로 짜졌고 民正黨은 實名制실시의 연기나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마당에 세출을 먼저심의한후 세입은 재무위에서 稅法심의를 한뒤 조정한다는것은 잘못이다. 세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출부터 짜후 세입을 여기에 두들겨 맞춰서는 안된다.

▲金副총리=지금까지 관례로봐서 歲出을다루는 과정에서 歲入을 검정해왔다. 과거10일정도의 時差를두고 歲出을 먼저다루고 세입을뒤에 편성하는데도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정부는 稅法개정안등을 국회에 제출중이니 국회심의결과에 따르겠다.

▲金鉉圭의원(民韓)=이미 제출한 각종稅法案에대한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가. 정부의 歲出예산안은 實名制를 전제로한것으로 특히 국회제출 稅法案은 이를기준으로한 것이다. 한간에는 稅法案의 개정문제와 實名制의 연기론이 나오고있다.

정부의지는 무엇인가. 만일 民正黨의 수정안이 나온다면 새해예산은 허구에찬 예산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심의가 시간낭비라는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는 實名制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李大淳의원(民正)=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8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라 歲入부문은 租稅法定主義를 택하고 있다. 세입과 관련된 부문은 재무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歲入歲出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을 다루고 세입부문은 재무위원회와 합동회의를 해도된다. 民正黨이 예산안수정안을 제출한 바도 없다. 헌법·국회법정신에 의거 本예산심의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3시15분停會)

內務委

▲趙鍾浩의원(국민) 질의=의무경찰제도는 헌법제37조에 규정된 국방의무의 관념을 흐리고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의무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며헌법제6조에규정된 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것이며 헌법 제24조에있는 公務담임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는것이아닌가.

▲趙鍾奎의원(民韓)=경찰관의 계급停年단축으로 83년12월31일까지 경위급이상 간부경찰관 4백46명이 퇴직토록되어있는데 이들이 퇴직할때 경찰관士氣에 미치는영향은.

戰警에대한 법치은 軍사병과 동일하다고하는데 그내용은 무엇인가. 정부경찰대설치法대로하면 경찰의중립과 軍풍토로 변화하고 정치적도구로 변모할 가능성이있다고 보지않는가.

부조리발생소지와 경찰기강의 해이를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 직업경찰과 의무경찰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는가.

▲金炳宇의원(民正)=계급停年이 실시되고난뒤 정년퇴직하게될 경찰관에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의무경찰관에대한 16주간의교육은 對民봉사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徐淸源의원(民韓)=세계적으로 停年을 연장하는추세에서 경찰관의 계급정년단축은 이 흐름에 역행하는것이 아닌가. 총무처는 내년부터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방침인데 경찰관의 계급정년을 단축하는것은 모순이 아닌가.

계급정년실시로 수사·정보·대공분야등 특수직종사 경찰관이 대거 퇴직할우려가 있는데 경찰업무에 지장이없겠는가. 일반경찰관은 刑法을 적용하면서 의무경찰에는 軍형법을 적용한는것이 불균형이라고 보지 않는가.

▲盧泰愚내무장관 답변=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시험행의 현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제도가 경감까지 적용토록 돼있는것을 앞으로는 경위까지 下向조정할 방침이다.

공로퇴직시의 특진혜택은 현재는 경감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치안경감까지도 공로퇴직시의 특진이 가능토록 하겠다. 의무경찰은 전문성을 요하지않는 단순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職에는 직업경찰관으로 배치하겠다.

의무경찰은 [illegible] 방범순찰, 유치장, 약대, 상황실, 교통정리등의 업무에 종사하게되며 교통사고조사, 강력사건수사등의 활동에는 직업경찰관이 담도록하겠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의무경찰의 교육기간 연장을 고려하겠다. 의무경찰의 부작용도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安應模치안본부장답변=과거 경찰의 승진을 경찰국에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맡기겠다. 경무관승진도 지금까지는사실상 임용하던것을 앞으로는 심사를 제도화하여 공정을 기할 방침이다. 전투경찰은 가족부양의무가 없는 사람들로 학력과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수가 적다고하여 부조리의 요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기존의 직업경찰보다 부조리면에서는 훨씬 깨끗하다.

경찰관을 전투경찰로 대치한다하여 기존경찰의 감축은 없다. 다만 자연퇴직이나 징계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수년간에 걸쳐 자연히 감축될것으로 본다.

직업경찰이 현재에도 支·派出所에서 전투경찰을 지휘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마찰은 없다.

保社委

▲李廷彬의원(民韓) 질의=과연 86년까지 국민皆保險실시가 가능한가.

醫藥分業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라.

금년여름의 뇌염환자수가 외국관광객에게 알려질것이 두려워서인지 쉬쉬해 피해가 늘어났다. 또 뇌염환자를 眞性, 擬性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美FDA가 發癌물질이라고 발표한 페나세틴이 함유된 解熱劑를 즉각 수거폐기해야하는데도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준것은 보사부가 국민보건을 위하는것이 아니라 제약업자만을 보호하려는 인상이 짙다.

▲金漢의원(民正)=60년대 우리나라의 母乳授乳率이 95%였으나 82년현재 현황은 갓났을때 75·8%, 생후 3개월이되면 40%로 뚝 떨어진다.

반면 스웨덴등 유럽의 경우 2차대전후 30년간은 20%에 불과했으나 70년대후반부터는 80%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의 母乳가감소되는것은무슨이유라고보는가.

◇民韓요구협의하는 金副총리·姜재무 예결위에 나온 金俊成부총리와 姜慶植재무장관이 회의벽두 實名制보류와관련한 새해예산안의 「先철회 後심의」를 주장하는 民韓黨의원들의 요구에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하고있다.

實名制파동 空轉드라마

엎치락 뒤치락 그 속사정

○…3일 하오 총무회담을 고비로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는듯 하던 實名制파동은 4일의 財務委간사회의에서 小委구성을 정상운영에 합의까지 보았으나 民韓黨이 뒤늦게 합의를번복. 明暗이 교차하는 엎치락 뒤치락의 해프닝을 연출.

재무위의 實名制波高는 급기야 예산심의에 들어갈 豫決委에까지 번져 『實名制실시를 전제로해서 편성한 예산안은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民韓黨의원들이 연좌 攻勢를 취해 회의가 교착에 빠지는등 파란의 연속극을 이루었다.

○…계속 空轉되고 있는 국회財務委 實名制小委구성문제가 잠시나마 반짝하고 합의를보게된것은 4일 상오8시 롯데호텔 36층 에메랄드·룸에서열린 財務委 간사회의에서 였다.

朴泰俊위원장이『어제저녁야당총무로부터도전화를 받았는데『모든것을 간사회의에 일임했으니 빨리간사회의를 열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히자 李聖秀의원 (국민)은『나도 小委구성에 합의했으니 구체적인것은 간사들이 만나 경징토록 하라는 우리당총무의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하자 열쇠를 쥐고있는民韓黨의 金台植간사는 계속 침묵.

간사회의가 대체적으로 小委구성에 긍정적 분위기를 보이자 朴위원장은 주머니에서 財務委행정실이 작성한『재무위議事日程조정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한장씩 나눠준후『5일상오10시에재무위원전체회의를 열어 小委합동구성을 결의한후 곧小委활동에 착수하는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鄭順德·李聖秀, 李洪鍾의원은 즉각『좋다』고 동조했으며 金台植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贊意를 표했다는것.

나뉘준 의사일정조정안은 ▲實名制小委를 구성하여 4일간의 활동기간을 가진다는 1案과▲3일간의 심사가감을 가진다는 2案으로 나뉘져있었지만 구성시기는 분명히 5일로 정해져있었다.

이러한 조정안에대해 李聖秀의원이『實名制小委의 당초 일정이 5일로 정해져있었는데 이를 3일로정하는것은 심사기간이 너무 촉박한 느낌이 있으니 4일간으로된 1案을 채택토록하자』고 제의하자 金台植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했다는것.

이에 朴위원장이 『金의원의 생각은 어떠냐』고물어 金의원도『1案이 좋다』는 대답을 했다고 참석자가 傳言.

그동안 難關로 남아있던 小委구성문제가 20여분만에 타결되자 朴위원장과 간사들은 小委구성문제는 아예 제처둔채 1시간동안 식사를 함께나누며 和氣속에 환담을 나누었다는것.

○…한편 幹事회의가 끝난직후 幹事회의의 합의사항이 알려졌고 이어 金台植간사가 합의사실을 부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民正黨의 鄭順德간사는「간사회의에서는 합의했지만 民韓黨의 절차문제가 남아 있어 부인하는것 같다」며 『民韓黨의 속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사정하기도 했다. 또 국민당의 李聖秀의원도『아무런 부대조건없이 합의해놓고 나뉘 이제와서 부인하는것은 語不成說이다』고 일축했다.

○…4일상오에 열린 民韓黨의 총무단―재무위위원들의 연석회의는 더이상 國政심의를 空轉시킬수야 없지않느냐』는 대명제아래 그돌파구를 찾기위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엉뚱하게 原點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林鍾基총무는 연석회의를 시작하면서『財務委의 空轉은 국회의 空轉을 의미한다. 국회의 空轉은 국정심의의 회피라는 비난이 나올수도있다. 문제의 實名制案의 심의를 뒤로 돌리고 稅法 심의부터 착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맨먼저했다.

바로 연석회의에 앞서열렸던 柳致松총재 주재의총재단과 당3역 회의에서의 결정을 모은 내용이었다.

이사이 밖에서 전화를걸고 있던 金承穆의원이 황급히 달려 들어와 制動을 걸었다.

『도대체 民韓黨의 黨論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그 眞相을 밝히라』고 소리를 높였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무슨 짓이냐』고 큰소리가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

협의(?)를 뒤집어 쓰고있던 金台植 재무위간사가 입을열었다.『오늘아침 朴泰俊 재무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朝餐을 나눈것은 사실이다.그러나여·야 간사의 공식모임은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財務委의 小委 활동 기간을 합의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小委 일정을 합의해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애당초의 名分論으로 急旋回, 反韓하기 시작했다. 朴完奎의원은『우리가 小委에 임했을경우 지금껏 주장하던 국회법 88條에의거한 수정안을 내놓기란」 주장과 관계경제장관의 문책요구는 어떻게 되느냐』고 砲門을 열었다.

金文元의원은 『우리의요구조전중 어느하나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참여는 크나큰 정치적 손실이다』李載根의원은 『국정심의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할줄안다면 최소한 참여할수 있는 명분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不參論을 제기했다.

小委구성 合意 뒤늦게 번복

豫決委까지 번져 活火山으로 回歸

이분위기에 눌린 林총무는『당분간 空轉은 피할수없으며 국민들에게 罪스러움을 감출수 없다』고 原點으로의 回歸를발표했다.

○…劇的타결의 局面에 접어들었던 財務委의 實名制小委구성문제가 한순간에 原點으로 回歸한것은 實名制가 아직도 꺼지지않은 活火山으로 남아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實名制의 불똥이 국회운영과 야당에까지 번지게된것은 지난달29일 實名制실시유보를 결정한 정부·여당의 黨政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난후부터였다.

이같은 교착상태가 풀린것은 정치적절충의 필요성을 서로절감한 3黨총무가 3일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고 나선후부터였고 총무회담에서는 원칙적으로 小委를 구성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무단의 합의가능성은 4일상오에 있었던 財務委간사회의가 불과 20여분만에 小委의사일정을 대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엿볼수있다.

그런데도 간사회의가 끝난지 불과2시간만에 民韓黨이 총무단 소속재무위원연석회의를 통해 당초의주장을 내세우고 小委구성에 不應하게된것은 복잡한 民韓黨의 黨內사정과 實名制가 相乘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연석회의가 간사회의의 합의를 뒤집게된것은「小委구성반대」라는 原則的인 밥상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대다수재무위원들의 疎外感이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즉 黨지도부와 총무단은 더이상 국회財務委를 空轉시킬경우 결코 得이되지않는다』는 판단아래 先財務委 稼動後對與협상을 구상했으나 일부 재무위원들의 制動으로주춤한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說往說來와 혼돈에도 불구하고 국회주변에서는 멀지않아 小委가 구성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러한 예측은 어떤 정치적變數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회空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各黨이 또다른 정치적 절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實名制小委를 둘러싼 政局은 새局面에 접어든셈이다.

【李成俊·李以春기자】

메아리

山房주인

金聖佑 <編輯委員>

老哲學者가 은거하고있는 암자는 칠실 하나 서재 하나의 단촐한 陋居다. 서재라지만 방삼은 탁자 하나를 가운데 놓고 벽좋을 둘러치니 가득찬다. 지금 철이 한창인 단풍이 온집을 벌겋게 둘러쌌다. 山을 오르는 발길이 별로 닿지 않는 외진 山中의 외딴집이다.

高亨坤교수가 內藏山에 들어온 것은 4개월쯤 된다. 오랫동안 비워두어 폐옥이 되다시피한 內藏寺소속의 암자를 빌어 간단한 수리를 했다. 高교수는올해 77세. 10여년전 內藏山에 왔다가 西來峰에 마음이 끌려 언젠가는 이 山에 와서 묻혀 살리라 마음먹었다. 서울대 철학교수를 거쳐 全北大 총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서울에서 은퇴생활을 하고있던 老교수는 금년에 마침내 그 꿈을 실현했다.

高교수는 가족들을 모두 서울에 두고 혼자 와있다. 첩첩산중에 무어하러 가서사느냐고 부인도 따라오지 않아 외로운山속에서 독신생활이다. 老軀를 무릅쓰고·식사를 혼자 해먹고 연탄불도 직접 갈아넣는다. 山에 들어온 이후로 수염을 깎기가 귀찮아 기른 것이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山봉우리를 오르내리면 꼭 禪師모습이다.

암자에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외에는 녹음기로 음악을 주로 듣는다. 임방울의「赤壁歌」를 듣다가 오페라「라·트라비아타」를 듣다가 한다. 山밑의 마을에서 양식과 함께 술을 공급해준다. 山과 對坐하여 獨酌하는 재미 또한 別味다. 가족들이 TV를 갖다놓았지만 난시청지역이라 잘 보이지 않고 지방신문사에서 신문을 한부 보내오고 있지만 잘읽지 않는다.

高교수는 그냥 老後의 消日을 위해 이 山中에서 自適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닦은 학문을 정리·결산하기 위해서다. 서울생활을 하다보면 공연히 바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만하여 못다한 일을 끝내출 시간도 의욕도없다. 꼭 하고 싶었던 필생의 작업을 완성하는즐거움이 이山속에 있다. 그는 후셀의스승인 프란츠·브렌타노의 연구를 하고 있다. 브렌타노를 통해 禪을 구명하는 책을 쓰는 중이다. 자기 철학사상의 集大成이다.

山이 적적하다지만 책속에 벗이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책을 읽노라면 남은 책장이 몇페이지밖에 안되는 것이 아까와 나머지 페이지를 헤어보고 다시 헤어보곤한다. 산이 염지리하지가 않다. 山에 와보니 서울에서 한달 걸리는 일을 일주일이면 해낼 수 있다.

高교수는『이렇게 신나는 생활이 또 있겠는가』하고 몇번이고 되풀이해 말한다.『나의 80평생중 내가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소년처럼 즐거워하는 老顔에 조금도 과장이없다.

그는 책을 쓰기위해 임시로 와있는것이 아니다. 여생을 여기서 살다가 마칠 생각이다. 처음맞는 이번겨울이 걱정은 된다. 암자는 얼마나 추울것인지, 온山에 눈이 쌓여 길이 묻히면 문을 몇날며칠이나 잠그고 견뎌야할지. 금년겨울만 이겨내면 내년봄에는 집둘레에 밭뙈기를 일구어 파라도 심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전 內藏寺앞쪽에서 늙어 쓰러진 8백년생 단풍나무의 토막 하나를 얻어다가「內藏山房」이라고 손수써서 通額도 내걸 것이다.

서울에서 올때 벗이라도 될까하여 종달새 한마리를 가지고 왔더니 다람쥐가 자주 기어올라와 장난을하는 바람에 겁을먹고 영 울지를 않는다. 도시에서 자란 새는 山에와서 노래를 잊었다.

高교수는 문을열고 나서더니 이 바위를 보라고 한다. 바로 눈앞에있는 커다란 자연석이 壽石같다. 서울에서야 몇천만원 준들 이런돌을 집뜰에 갖다놓을 수 있겠느냐고 한다. 그리고는 암자앞으로 이마받이하며 수직으로 높이 솟은 절벽을 가리킨다. 어느 대갓집 벽에걸린 귀한 동양화가 이보다 더 아름답더냐고 한다. 그러면서『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누군들 이런 晩年을 지내고싶지 않을사람이 있을려고. 그런데 나만 이런 은혜를 입고있으니』하고 老哲學者는 누구에게랄것 없이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山너머 저쪽 陋巷의 喧騷에 대한 번 告別辭다.

『그럴까요, 一生을 이렇게 완성할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인삿말을 하고 不意의 來客은 물러났다.

美國 매사추세츠州의 콩코드에는 월든이라는 숲이 있다. 美國의 사상가 헨리·도로는 이 숲에 움막을 짓고 혼자살면서 「월든―숲의 생활」이란 名著를 썼다. 이 숲을 찾아갔을때 도로의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돌무덤이 쌓여있고 콩코드 시내에는 도로기념관이 있어 거기 움막이 실물대의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어있었다.

【內藏山에서】

◇그림과 사람의 調和 전차외벽에 그려진 그림이 전차안에 앉아있는 탑승객들과 어울려 희안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브레멘(西獨) 4日UPI聯=聯】

버킹검 警備허술

★침실事件발생넉달도안돼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의침실침입사건이 발생한지 넉달이 채안됐는데도 버킹검궁의 경비가 아직도 허술하여 누구든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않고 여왕의 전용마차에 접근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데일리·미러지가 3일 보도했다.

여왕의 침실침입사건을 앞서 폭로했던 타블로이드판 미러紙는 自社소속 기자1명과 사진기자 1명이 근무지를 이탈, 이웃 간이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버킹검宮정문경비원으로부터 공식주차증을 넘겨받아 궁전전용주차장에 자기들의 차를 주차시키고는 이날몇시간뒤면 하원개원식에 참석할 여왕을 태우고 갈 여왕전용마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런던=聯】

海外토픽

美·蘇영화製作협력

★兩國관계자會談진행중

소련영화계와 미국영화제작자들간의 협력은 그전망이 밝으며 소련영화업계는 현재 아만드·해머 옥시덴틀석유회장및 할리우드영화제작자 제리·와인트라우스씨등을포함한다수의 미국영화제작자들과 이에 관한 회담을 진행중이라고. 【모스크바=UPI】

東南亞에毒蛇극성

★比에 硏究센터설립 제의

미국인 의료전문가들은 최근 독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주민들을위해 필리핀에 독사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제의했다고.

영자신문인 마닐라·불리틴에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필리핀환경청장관인 이멜다·마르코스여사에게 이지역에 득실거리며 인명피해를 내고있는 코브라등 독사의 독을 연구,추출해 내기위해 5개 아세안회원국들이 각각 5백만달러를기부해줄것을 제안했다는것.

그런데 지난 1980~82년기간중 필리핀에서는 1천45명, 말레이지아에서는 1천8백75명,인도네시아에서는 1천1백96명,타이에서는 9백65명,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1천2백56명이 뱀에물려 희생됐다고. 【마닐라=AP】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CENTRAL CANADA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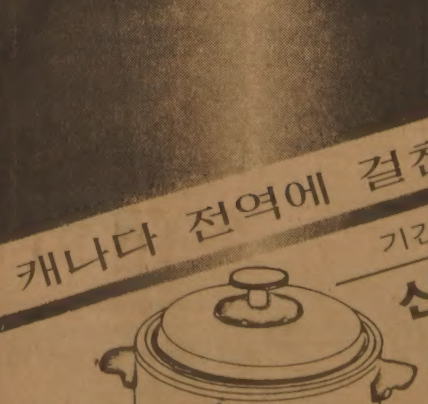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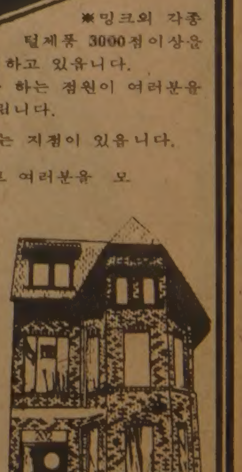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E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진

美프로야구 「14년代父의 退場」

코미셔너 보위·쿤, 球團主 불신임으로 물러나

利益분배에 지나치게 영향주고 ◇◇◇ 81年 선수스트라이크에 無氣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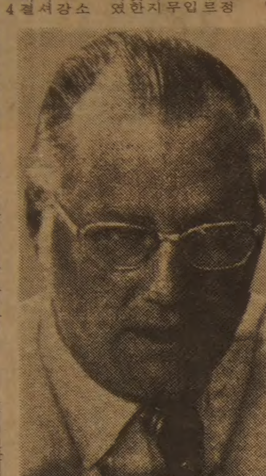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代父로 군림하던 코미셔너 보위·쿤이 구단주들의 불신임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다.

1일 시카고에서 열린 프로야구 26개구단주회의는 보위·쿤의 3選을 부결, 14년권좌에서의 추방을 결정했다. 회의시간은 불과 27분.

프로야구의 최종적인 조정역으로서 절대권한을 휘두르던 보위·쿤도 구단주들의 입김앞에서는 파리목숨처럼 무력했다. 보위·쿤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지로 돌리지못한 2개의 반대표가 치명타였다.

메이저·리그도 사실상 소수의 힘에의해 지배된다. 강력한 조정권을 가진 코미셔너의 선임이 구단주회의서 결정되며 내셔널·리그도 단 4개의 반대표로, 아메리칸·리그는 5개의 반대표로 임기가 만료된 코미셔너를 간단히 쫓아낼수 있도록 되어있다.

1일 회의에서 보위·쿤은 아메리칸·리그 14개구단주들로부터는 유임에 충분하고도 한표가 남는 지지 11표, 반대 3표를 획득했으나 내셔널·리그서는 유임에 2표 모자라는 지지 7표, 반대5표를 기록했다.


◇보위·쿤

보위·쿤의 패배는 그의 퇴장을 바라는 내셔널·리그 구단주들에의해 사전 모의되고 결정된것이다.

내셔널·리그에 소속된 아틀랜터·브레이브스의 테드·터너, 뉴욕·메츠의 넬슨·더블데이, 휴스턴·어스트로스의 존·멕멀런,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의 오거스트·부쉬·주니어등 5명의 구단주들이 보위·쿤의 추방을 선동했으며 또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추리되고있다.

보위·쿤에 대한 원망은 이익분배에 대한 보위·쿤의 지나친 입김, 보위·쿤의 사업적 재능에 대한 불신, 81년시즌 선수스트라이크에 대한 무기력한 조치로 쌓여진것이다.

특히 새로이 추진중인 메이저·리그의 사업최고경영관의 독자적인 운영에대해 보위·쿤이 위협을 느끼고 적극반대에 나섬으로써 구단주들과의 불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보위·쿤의 추방은 지난여름 이미 결정적인단계에 접어들었다. 샌디에이고에서의정례 여름구단주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보위·쿤의 「五敵」들은 사전회의를열어 보위·쿤의 유임반대를 합의했다.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피터·오말리등 보위·쿤의 지지파들은 11월1일로 최종결의시간을 늦추어놓고 보위·쿤지지표획득작전에 나섰으나 더이상은 연명의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

81년시즌 스트라이크로 처음가진 전·후기 우승팀대결에서 석패, 분통을 터뜨렸던 세인트루이스의 오거스트·부쉬는 82년시즌 월드·챔피언의 영광을차지, 기분이 좋아질틈에 보위·쿤지지파들이 화해를 바랐으나 실패였다.

그위에 신시내티·레즈의 윌리엄·윌리엄즈가 반대에가세, 보위·쿤에 결정타를 먹였다.

아메리칸·리그서는 뉴욕·양키즈의 변덕장이 조지·스타인브레너와 텍사스·레인저스의 에디·차일스, 시애틀·머리너스의 조지·아지로스등이 반대파로 알려졌다.

보위·쿤은 초대 포드·프릭, 2대 윌리엄·에커트에이어 69년2월 3대 코미셔너로 취임, 내년8월31일의 임기만료때까지 14년반 메이저·리그의 권좌를지켜오고있다. 지난 13년간 그가 코미셔너로 있는 동안 메이저·리그는 東西지구별 우승결정전, 지명타자제도(아메리칸·리그서만), 자유계약선수제도, 72년과 81년 두차례의 스트라이크등 주요변화와 사건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는 곧 8개구단주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통해 메이저·리그를 이끌어갈 새로운 코미셔너를 선출하게 된다. 집행위원은 피츠버그, 신시내티,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밀워키, 샌디에이고, 보스턴, 볼티모어의 구단주들이다. 前대통령 제럴드·포드와 前국무장관 헨리·키신저가 후임 코미셔너로 물망에 오르고있다. 【方錫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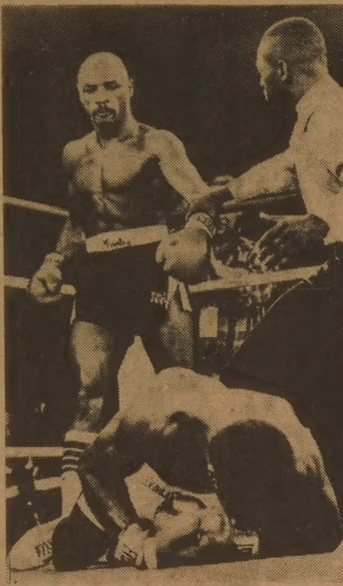
海外 스포츠

오벨메이아스 "눈찔려 졌다"

「無敵 해글러」에 口舌數

"치사한 트집" 攻防戰

레너드도 對戰꺼려 당분간 獨走


◇링에 오르기전에 항상 면도칼로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는 공포의 「대머리 강타자」마빈·해글러. 오벨메이아스를 5회에 KO시키고 타이틀 5차방어에 성공, 세계미들급 최강자로 군림하고있다.

『정당한 승리가 아니다』『그는 반칙으로 이겼다』『치사한녀석 질때마다 핑계만 늘어 놓는다』프로복싱WBA및 WBC 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28·미국)와 풀헨시오·오벨메이아스(29·베네수엘란)간에 링밖 설전이 한창이다.

지난 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산레모 市에서 벌어진 해글러의 타이틀 5차방어전서 도전자 오벨메이아스는 5회 2분33초만에 무참히도 KO패 하고말았다. 그러나 오벨메이아스는 경기직후『해글러가 주먹으로 나를 쓰러뜨린것이 아니다. 3라운드서 그가 손가락으로 내눈을 쑤셔 눈이 안보여 어쩔수없이 패하고말았다』고 주장했다.

「공포의 대머리」해글러는 오벨메이아스의 비난에 대해 『비열한 변명에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난해1월 오벨메이아스가 해글러에게 도전, 8회KO패했을때에도 오벨메이아스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지않았으며 치사한 핑계로 일관했다는게 해글러의 주장이다. 당시 오벨메이아스는 심한 기관지염으로 컨디션이 나빠 패했다고 기자들에게 변명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 대전을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미들급은 당분간 해글러의 독무대가 될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60년대 미들급 세계챔피언이었던 니노·벤베누티는 해글러—오벨메이아스전을 중계하는 이탈리아 TV방송국 해설자로나와『링에서 패배하지 않는 복서는없다. 그러나 당분간 해글러를 꺾을 선수는 나타나지 않을것이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해글러—오벨메이아스경기는 지난5월 눈수술을 받고 현역 은퇴상태인 WBA·WBC 웰터급 통합 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도 美國 TV방송국 해설자로 등장했다. 레너드 역시 벤베누티와 같은 의견이었다. 『해글러는초반부터 오벨메이아스를 압도했으며 당분간 그를 꺾을미들급 선수가 없을것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레너드는『해글러와 싸우기에는 내가 너무 가볍고 체구가작다』고털어놓았다.

레너드의 이같은 태도는 레너드가 은퇴를보류하고 체중을올려 해글러와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일지 모른다는 신문보도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싱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만약 레너드—해글러전이 앞으로 실현된다면 이대전은 금세기에 손꼽힐만한 빅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포스트紙는 레너드—해글러 타이틀매치가 내년 여름 美國 볼티모어에서 열릴것같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글러는 레너드와 일전을 겨루기전에 우선 미들급 상위복서 가운데서 도전자를 구해야 한다.

현 미들급 복서 가운데서 해글러를 꺾을 강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토니·쉽슨(24·영국)과 프랭크·플레처(28·미국)가 꼽히고 있다.

18세에 프로복서가 된 토니·쉽슨은 데뷔 첫해에 8연승을 기록,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가 처음 패배를 당한 것은 78년 10월. 80년 12월 마테오·살베미니를 7회 KO로 물리치고 미들급 유럽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2월 드와이트·데이비슨을 물리치고 미들급 1위에 랭크되어 해글러에도전할 자격을 얻었다. 지금까지 46승(25KO) 3패 1무를 기록하고 있다.

◇해글러가 오벨메이아스를 물리친후 타이틀 벨트를 처들어 보이고있다. 【산레모 (이탈리아) UPI電送=聯合】

해글러는 토니·쉽슨보다는 프랭크·플레처와 먼저 싸우고 싶어한다. 프로모터인 봅·애럼씨에 의하면 토니·쉽슨이 양해만 한다면 플레처와 먼저 타이틀방어전을 갖고 싶다는게 해글러의 생각이다.

美國 복싱팬들에게는 토니·쉽슨보다 플레처가 더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더 많은 대전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2승 2패의 아마추어기록을 갖고있는 플레처는 76년 프로로 데뷔했다.

프로 초반에는 각광받지 못했다. 3년간 겨우 7번링에 올라가 4번 이기고 2번지고 1번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3년간 번돈은 고작 9백달러에 불과했다. 플레처가 두각을 나타낸것은 유선TV인 ESPN 프로그램의 힘이었다. ESPN 미들급 경기에서 4연승(3KO승)을 기록, 전문가들의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 프로전적은 15승(10KO) 2패1무승부. 기록자체는 물론 대단한 것이 못되지만 그를 소개할때는항상 이름앞에 애니멀(동물)이라는 말이 붙어다닌다. 경기에 몰두할때는 동물적인끈질김을 보인다.

과연 이들이 해글러를 캔버스에 눕힐수 있을지 의문이다. 【金仁奎기자】

西獨축구계

졸전거듭 팬들外面…분데스리가 각球團 赤字에 허덕

서독축구는 아직까지도 월드컵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3개월전의 월드컵대회이후 축구팬들의 이탈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이 줄어든 각구단의 재정담당자들은 은행문을 들어서는게 두렵다고 말하는형편이다.

서독은 준결승전서 라이벌 프랑스를 제치고 결승전까지 올랐지만 이상적이 승부조작이란 추문을 일으킨 오스트리아전의 승리(1—0)나 알제리, 잉글랜드와의 졸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것같다.

지난 9월22일 뮌헨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월드컵이후 첫국제경기가 벌어졌다. 그러나 입장관중은 고작 2만5천명으로 2차대전후 가장 적은 숫자였다.

유럽의 축구왕으로 선발된 칼·하인츠·루메니게가 시종 분전을 했지만 벨기에와 득점없이 무승부로 끝나자 관중들의 조소는 빗발쳤다.

분데스리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1부리그의 9개경기에 27만5천명이 입장하는 화려한 스타트를 끊었지만 그후 인기는 내리막길이었다.

일부팬들은 월드컵대회서의 경기내용에 울분을 토로했다.

한 바바리아의 클럽은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보고는 비신사적인 서독팀의 행위에 분개, 서독축구연맹에서 탈퇴했다. 월드컵에 대한 팬들의 실망을 절감한 1부리그의 포투나·뒤셀도르프는 이번시즌의 슬로건을 『와서 보시오… 우리팀엔 월드컵출전자가 없읍니다』로 정했다.

귄터·네처, 볼프강·오베라트, 프란츠·베켄바우어, 뮐러등이 활약하던 70년대서독축구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지금의 서독축구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77~78시즌의 분데스리가 관중은 8백70만명이 넘었으나 지난시즌 관중은 6백40만명.

한시·뮐러와 같은 멋진 스타가 외국구단으로 이적한것도 관중동원에 실패한 큰 요인이 되었다. 【본=聯合】

스틱휘두르는 선수 美國서 규제강화

NHL, 올해 5명에 出戰금지…"상대팀에대한 禮儀 결여"

美國 내셔널·하키·리그(NHL)는 스틱을 마구 휘두르는 선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개막된 하키·리그는 금년들어 선수들이 난폭하게 스틱을 휘두르는 사건이 급증, 강경한 대응책을 세우게 되었다.

상대선수에게 스틱을 부당하게 휘두르면 엄한처벌을 받게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써 다섯 차례나 스틱불상사가 일어났다.

NHL 부회장 브라이언·오닐씨는『신인 선수들이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일으키는것은 큰문제가 아닐수없다. 선수들이 새로운 추세라면 그들의 정신자세에 큰문제가있다』고 말하고있다.

NHL경기도중 상대선수에게 스틱을 불법적으로 휘둘러 부상을 입힌 선수5명이 이미 출전금지 처벌을 받았다. NHL사상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밴쿠버팀의 데이브·윌리엄즈는 뉴욕·아일랜더와의 경기에서 상대골키퍼 빌리·스미드의 머리를때린 혐의로 7게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윌리엄즈는 스미드가 먼저자신의 사타구니를 공격했다고 주장, 리그관계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게임을 운영하여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8년경력의 윌리엄즈는『요즘의 선수들은 상대선수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털어놨다.

선수들이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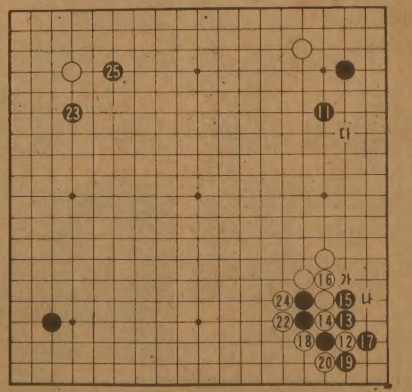
상벌문제를 담당하고있는 오닐 부회장은『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스틱을 휘둘렀다하더라도 불법적인 스틱사용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아이스·하키와 같은 격렬하고 빠른 경기에서 심판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보기는 힘들다. 스틱 싸움을 벌여도 잡아내기 어렵다. 팔꿈치로 상대의 얼굴을 갈겨도 밝혀내기 힘들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심판은『스틱 사고에는 중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대회 본부의 리더십도 아쉽다』선수들에게 중벌을 내리기전에 먼저 경고를 주어야한다. 팀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는 스틱을 휘두르는것을 주저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閔炳宇기자】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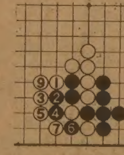
第3局 第2譜 11~25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 相 激
黑(7段)河 燦 錫



李4단은 요즘에와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國手戰에서 4승2패로 상위권을 마크했고 名人戰은 2차예선을 질풍의기세로 통과하더니 마지막 3차예선도 뭇강호선배를 모조리꺾고 본선에 올라섰다. 끈기가있고 전투에 강하다는 평도 듣는 그가 名人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과연 어떤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다. 상대는 백전노장의 河7단이다. 게다가 白을들고 하는 첫판인지라 약간 힘에 겨울것도 같지만 좌우간 차분히 지켜보기로 한다.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黑11은 15자리에 붙여 白「가」黑「나」로 뻗어두는것이 정석이다. 그렇지만 白이 선수를 잡고 「다」자리를 협공하면 불만스런 꼴로된다. 따라서『黑11은 타당하다』고 趙南哲 8단은 해설한다. 정석도 경우에따라 취사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定石의 취사선택



白12는 黑15로 붙여뻗는수에 앞서 흔히두는 수법으로 이하 黑21을 12자리에 있는데까지 외길이다.

白22로 축이다. 그러나 실전처럼 머리인 黑23, 25를 허락하고 白24로 따내는 수와 참고도와같이 白1축에서 몰아 9까지(黑8이음) 실리를주고 외세를취하는 수법도 있는것인데 물론, 대국자의 기호에따른다. 21…이음. 【一凡】

아이들을 제자리에…

아이들을 제자리에 앉히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고 이제 그것은 법제화됐다.

82년11월1일 이후 출생아들을 차에 싣고 다닐 때는 반드시 뒤를 향해보는 유아의자에 앉히고 단단히 묶어야한다.

이 유아가 체중이 8~18킬로그램(20~40파운드)이 되면 좌석에 앉아 싯벨트를 매야 한다.

몸무게 18~23킬로그램(40~50파운드)의 학령전 어린이들은 차안에서는 무릎벨트를 매야한다.

23킬로(50파운드) 이상의 어린이들은 성인용 싯벨트를 매야한다.

불잡아 매시오.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Ontario
James Snow,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공고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인(다운타운)
89 Chestnut(977—0707)
입장료 : $25(디너포함)

※유명가수와 밴드가 출연합니다.

토론토지구 한인회장 박인순

渴症

嶺湖南 가을가뭄 심각

제한給水 확대…내년農事 걱정

降雨量 예년의 절반

【嶺·湖南지역 이동독자부=裵琪哲기자】 嶺·湖南지역에 늦가을가뭄이 극심하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11월초순까지 계속, 예년에 비해 평균 2백~5백㎜의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산, 大邱, 光州, 金州, 木浦등 주요도시에서는 상수원마저 고갈돼 대부분이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있다. 또 일부농촌지역에서는 상수원은 물론, 대규모 댐까지 저수량이 크게 모자라고 있는데 눈이나 비가 내리지않아 이같은 가뭄이 내년봄까지 계속될 경우 내년봄에도 농업용수부족에 시달릴것이 분명하다.

【光州】 光州지방의 식수난은 이미 지난여름부터 제한급수로 시작됐는데 11월1일부터 다시격일제급수를하고 있으며 멀지않아 3일제급수도 불가피한 전망이다.

光州市의하루필요급수량은 16만5천톤인데 4일 급수량을보면 겨우 11만7천톤.

光州市의 상수원은 同福, 石谷제2수원지등 3개소인데 저수량이 가장많은 同福수원지가 4일현재 4백72만톤(만수량7백10만톤)이고 石谷수원지는 25만톤(만수량84만4천톤)밖에 남지않았다.

同福수원지도 1일 유입량이 겨우4만여톤에 불과해 현재의 취수구를 낮추는공사가 시급한 형편이다.

이같은 光州지방 상수난은 우선 강우량이 지난10월말까지 6백95㎜로 평년의 1천2백11㎜에 비해 거의 반에 불과해 절대량이 모자라는데 원인이 있고, 또 光州湖에서 하루3만톤씩 급수를 받다가 내년농사때문에 급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光州市는 상수난을 長城湖의 물을 공급받는데있다고 판단, 농수산부와 절충중이지만 13㎞에 걸친 송수관 연결공사가 서둘러도 연말전까지는 완공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光州市는 근본적인 상수난 해결을위해 고지대주변 16개소에 깊이80~1백10m의 심정호를 파고 5가구당 1개소꼴로 지하수펌프시설 설치를 추진키로하고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木浦】 고질적인 식수기근을 벗어나지 못한채 늦가을 가뭄을 맞고있는데 4일현재 1일 필요급수량 5만톤에 절반도 공급하지 못하고있다.

木浦市의 자체수원지인 대동·발산동·개저수진는바닥이났고 羅州湖에서 하루3만톤씩 끌어들이고 있으나 이 저수지의 저수율도 29%에 불과하고 光州와는 달리 간사지가 많아 지하수개발이 부적당해 더욱 심각하다.

【大邱】 嶺南지방도 식수난 사정은 비슷하다. 大邱市는 61년이래 가장심한 가뭄으로 3개 상수원이 위험수위까지 내려가 3일부터 시내99개동에 제한급수를 시작했다. 大邱市가 하루 필요한급수량은 40만톤이나 이렇게급수하다가는 연말에 수원이바닥나 열흘가량 하루20만톤을 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大邱지방의 가뭄은 올해 강우량이 예년보다 2백22㎜나 부족한데다 9·10월의 강우량은 예년의 30%에도 못미쳤다.

【釜山】 제한급수는 않고 있으나 상수의 80%를 洛東江하류에서 취수하고 있기때문에 하루필요량 70만톤을 공급하기엔 차비상급수대책을 서두르고있다. 釜山市의 제한급수여부는 安東댐방류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데 釜山市는 이를위해 건설부및 산업기지개발공사와 安東댐방류여부를 절충중이다.

그러나 安東댐저수량도 총저수능력의 33%에 불과한 4억톤에 머물고있고 大邱·釜山에 충분한 급수를 할경우 내년농업용수에 큰차질이 예상되기때문에 釜山지방도 제한급수등 달리 방도를 찾아야 할판이다.

한편 이같은 늦가을가뭄은 현재 지방도시의 식수난에 직접적인 영향이있지만 겨울철에 흡족한 강우를 기대할수 없기때문에 내년봄에도 농업용수부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를우려가 크다.

【全州】 한편가뭄에대비 전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인 「물가두기」작업을 서두르고있는데 다른지방도 늦기전에 이같은 비상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전쟁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늦가을까지 계속돼 大邱·光州·木浦등 嶺湖南지방의 주요도시가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겨울에 눈이나 비가 많이오지않으면 내년봄 농업용수난도 큰 걱정거리다.

地自制거론 論文 논란

내무부발행「地方行政」10월호에실린

朴東緖교수 地方의회 지연 논박

내무부가발행, 산하전공무원에게 배포한 「지방행정」10월호에실린 朴東緖교수(서울大행정대학원)의 「국정지표와 지방행정」이란 논문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朴교수는 이 논문에서 『우리는 불행히도 아직 지방자치는 다분히 명목뿐이고 지방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민의의 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인의판단이 강요되기쉬우며 민의 입장에서보면 행정기관의 일에 대해 심한불만및 무관심을 지니게된다. 또 때때로 이의 한도가 지나치게되면 과거에 몇차례 경험했던바와같은 폭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것』이라고 지적, 지방자치제의 실시필요성을 강조했다.

朴교수는 이어 『더구나 이해하기 곤란한것은서울, 釜山市를 위시하여 도청소재지나 인구5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있음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거나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수없다.

우리의 과거역사에 비추어 전국일제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고 하는것도아니며 재정자립도, 민도가 높은 대도시부터 우선 시장은 임명제로 종전대로 한다고하더라도 의회만은 선출된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지는 월간으로 내무부가 월10만부씩 발행, 전국의 읍면동과 내무부 직원들에게 비매품으로 공급하는 월간교양잡지로 내무부 간부및 대학교수등 8명이 편집위원으로 되어있다.

한편 내무부는 이책이 배부된지 오래여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보고 朴교수의 글이 실리게된 경위를 자체조사키로했다.

産兒제한 일반인도 奬勵金

내년부터, 醫保분만급여 2자녀로제한

정부는 4일 지금까지 영세민에게만 지급해오던 불임시술 생계보조금을 내년부터 산아제한장려금으로 일반인에게도 확대, 지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내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부진한 20개시·군지역을 대상으로 2자녀이하를두고 단산하는 가정에대해 5만원씩을 지급하고 실시과정에따라 지급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의료보험분만급여도 2자녀까지로제한, 세째아기를출산할때부터는 보험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지난5월부터 영세민중 ◀2자녀이하로 단산할경우 10만원 ◀3자녀 이상으로 단산할경우 3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는 충북忠州·전북高敞·전남新安등 3개 시범시·군에서 일반가구에도 불임시술 생계보조금지급사업을 실시한결과 성과가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동안의 추세로 보아 내년에는 모두 2만7천7백가구가 불임시술을 할 것으로추정, 이에따른 예산 14억8천6백만원을 새해예산에 계상했다.

내년에 산아제한 자려금이 지급되는 20개시·군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나 가족계획사업이 가장 부진한 지역순으로 곧 선정할 방침이다. 【聯合】

釜山서도 택시合乘규제

내달부터 운전사月給制실시따라

【釜山】 釜山市는 이달부터 택시운전사의 월급제가 실시됨에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시민들의 택시합승을 규제하기로했다.

市는 이를위해 시내중심가와 합승이빈번한 지역에서 계몽기간으로정해 시민의협조를당부키로 했다.

이와함께 합승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일반택시 4백59대를증차, 택시를 모두 8천1백68대로 늘리고 택시회사및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교육을실시할 계획이다. 【聯合】

全南大生 2명구속

학원소요 선동혐의

【光州】 光州西部경찰서는 4일 金學喆군(22·全南大경영학과3년)과 李[illegible]군(22·영문과3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13일 학원소요와 관련, 선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聯合】

8개월된 아기 변소빠져 숨져

【大邱】 3일 하오4시께 경북高靈郡高靈邑延詔洞234의16 김희구씨(30)집에서 생후8개월된 김씨의2남이 변소에 빠져 숨져 있는것을 김씨의처 성금자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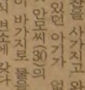
성여인에따르면 이날 애기를 방안에 재워두고 시장에서 반찬을 사가지고 와보니 방안에 있던 아기가 없어졌고 이웃 안모씨(30)의 장남(5세)이 바가지로 물을떠다가 재래식 변소에 갖다 버리고 있어 이상히 여기고 변소안을보니 아기가 빠져 숨져있었다는것. 【聯合】

稅金포탈 갑을그룹 15억여원 追徵

【大邱】 국세청특별 조사반으로 부터 세금포탈과 관련, 조사를 받아온 주식회사 갑을그룹(회장 朴在甲·대구西區院垈3洞1124의3)이 15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갑을그룹은 지난10월15일부터 27일까지 국세청에서 파견한 특별조사반으로 부터 부당환급 여부와 부가세 포탈여부등을 조사받았다는것. 【聯合】

國民大총장 後任에 李在澈씨 승인요청



학교법인 國民학원재단 이사회는 4일 하오 이사회를열고 지난달20일 사표를낸 國民大 鄭範錫총장의사표를수리하고 후임에 전仁荷大총장 李在澈씨(59·사진)를 선임,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李총장은 서울大법대를 졸업, 과기처와 교통부차관을 거쳐 仁荷大총장을 역임했다.

5行뉴스

◆전국 老人지도자 대회 — 대한노인회주최 제2회 전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지도자대회가 4일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金正禮보사부장관, 각노인학교교장및 지방별 학구단위노인회회장등 관계인사 3천8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釜山~下關 한국國籍船취항 【釜山】 내년3월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釜山~시모노세끼간의 정기항로에 우리나라 국적선 1척이 취항한다.

현재 이항로에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일본 카페리호가 다니고 있다. 【聯合】

「忠犬바둑이」는 거짓

현지조사결과 동네 어린이들 장난말

永培군 저수지둑서미끄러졌을뿐 안빠졌다

【咸安】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였던 咸安郡漆原面柳原里遠田마을 「보은의 개」 이야기(본보 2일자 11면)는 현지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철없는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한말이 그대로 기사화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개가 구했다는 田永培군(6)은 저수지 비탈길을오르다가 미끄러졌을뿐 물에빠진일이 없으며 문제의 「바둑이」는 그순간 永培군의주위를 맴돌았을뿐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永培군이 미끄러지는 현장을 목격했던 같은 마을 姜成吉(12·柳原국교6년) 姜炳宇군(11·同5년)과 永培군의 형 雲培군(9·同3년)의 설명과 현장답사결과 확인됐다.

어린이들은 가정실습으로 수업이없던 지난1일 상오10시께 永培군과 바둑이를데리고 遠田저수지안의 물 빠진 곳으로 놀러갔다. 야구놀이를한후 낮12께 집으로돌아오던중 뒤따라오던 永培군이 저수지 오른쪽 경사70도의 둑에서 미끄러졌다.

永培군은 다행히 둑아래 물가 바위에 걸려 물에 빠지지는 않았고 혼자 기어올라오는 永培군주위를 바둑이가 맴돌았다. 3명의 어린이는 자갈더미를 짚고 침착하게둑 중간부분까지 오른 永培군을 끌어올려 바둑이와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이날 하오3시께 炳宇군이 永培군의 어머니 이정순씨(32)에게 『바둑이가 아니었으면 永培가 큰일 날뻔했다』고 꾸며말했다. 이에 놀란 이씨가 雲培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炳宇·雲培군이 『永培가 물에 빠진 것을 바둑이가 구해줬다』고 대답했다.

이말을 들은 이씨는 개주인 周程植씨(50)집으로가 개를 쓰다듬으며 周씨에게 『바둑이가 물에빠진 永培를 구해주었다』고 감사해했다.

周씨는 이날하오5시께 이 말을 이웃 강선숙씨(49)에게 자랑삼아 전했고 술에취해있던 강씨는 『이같은 신기한 일은 방송국에 알려야 한다』며 遠田전화취급소에 달려가 馬山KBS에 전화를했다.

이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후 이마을 사람들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어린이가 빠졌다고해도 생후1년도 안된 개가 구했다고는 믿을수없다』고 의문을 가져왔다.

한편 거짓말한 사실을 柳原국교 崔甲圭교장(58)과 朴炳玉(36·5학년1반담임)·황정규교사(35·6학년2반담임)에게 고백한 세어린이는 『강씨가 집으로 찾아와 「누가 물거든 永培가 물에 빠진것을 건졌다고 하라」고 다짐까지했다』고 털어놓았다. 【聯合】

◇문제의 저수지 저수지 사고 현장서 『永培군이 미끄러졌을뿐 물에빠지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永培군의형 雲培군과 姜炳宇·姜成吉군.

2일字 보도 訂正합니다

알림 —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오보를하게 된것은 지방주재기자가없는 본보가 사실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할 방법과 시간이없어 일부 방송등을 참고해 기사작성을 하게된데서 비롯됐읍니다. 「아름다운전설」의 꿈이 깨지는 아픔이있지만 사실보도의 사명을위해 이기사의정정보도를 하게됐읍니다. 독자여러분의 혜량을바랍니다.

여자친구희롱 항의 밤길 20代 찔려숨져

【全州】 3일하오8시30분께 전북全州市高士洞1街 한성여관 뒷골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이곳을 지나던 金정용씨(24·全州市鎭北洞115)가 20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다리등 5곳을 찔려 예수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씨와 함께 가던 李모양(22)에 따르면 金씨와함께 저녁식사를 하러가는데 범인이 자신을 붙잡고 희롱, 金씨가 이를말리는순간 가지고 있던흉기로 金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聯合】

「半 프랑스人」 駐韓대사관 직원 李壽福씨

6·25로 因緣…訪佛땐「國賓」대우

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 李壽福씨(49·사진)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어로 욕지거리를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이다.

물론 욕지거리를 전공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다. 6·25때 미군부대에 가있던 소년들이 젊은미군들로부터 상소리를 주로 배우듯이 李씨도 17세때 주한 프랑스군 부대에 들어가 15년을 지내는사이 반쯤은 「프랑스兵士」가 돼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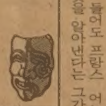
사투리만 들어도 프랑스 어느지역 출신인것을 알아낸다는 그가 최근 프랑스를 다녀오는 행운을 안았다.

6·25의 옛전우들의 모임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의 초청을 받았던것.

5백명이나되는 협회회원가운데에는 국회의원·사업가·퇴역장성등 유명인사들이 수두룩하다.

李씨는 이회원들로부터 국빈이상의 환대를 받으며 파리의 개선문·에펠탑은 물론 남부의 마르세유까지 프랑스 구석구석을 두루 구경하고 왔다.

李씨가 프랑스와 첫인연을 맺은 것은 50년 11월. 당시 대구 啓聖고교 1년을 다니던소년 李壽福은 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열차의 사환노릇을 하고 있었다.



「꽤 똘똘하고 싹싹했던」 李씨는 이때 부산에서 原州로 이동중이던 프랑스군의 한국인통역관눈에 띄어 그길로 프랑스군에 입대하게 됐다.

일병계급장을 달고 서부전선에 배치된 소년 李壽福은 프랑스군인들의 귀염을 독차지하는 「마스코트」였다.

배식때는 장교보다도 먼저 탔고 옷도 가장좋은걸로 지급받았다. 오른쪽 허벅지의 관통상등 2차례의 부상때는 파란눈의 동료들이 밤을새워 간호해줬다.

전쟁이 끝난후에는 李씨는 계속 프랑스군에 남아 하사까지진급, 지난65년7월 서울三角地에 주둔하던 연락장교단40명이 최후로 철수할때까지 근무하다 단장 뒤로씨(55·프랑스무역 서울지사부사장)의 소개로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 옮겨 지금까지 17년째 일해왔다.

2남2녀의 자녀들도 아빠의 영향때문인지 모두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고 장남(24)은 내년에 프랑스유학을 가기로 돼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 혼까지 빼앗긴건 아닙니다』는 점을 잊지않고 강조했다. 【金宗來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정열의 가수
"박소영" 인기리 공연중!!
■"매주 목·금·토·일"
■ *영업시간 : 월·화·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 2 시~새벽1시
거구장
5 BETHRIDGE RD.
ETOBICOCK
742-1618
이한영

서울市廳, 2년만에 頂上

李台熙·朴潤基 주거니 받거니 2골씩

뛰어난 個人技로 韓電잡아 4-1

제37회 전국 축구선수권 폐막

◇서울市廳과 韓國電力의 결승전。市廳 FW 金昌浩㊧와 韓電 FB 申達淳이 볼을 가운데놓고 맹렬히 대시하고있다。市廳이 4—1로이겨 우승。

서울市廳이 2년만에 다시 전국을 제패했다. 서울市廳은 4일 서울운동장서열린 제37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최종일 결승전에서 李台熙·朴潤基가 각각 2골씩을 올리는 수훈으로 韓國電力을 4-1로 물리치고 정상에올랐다.

이날 결승전은 경기초반부터 열기를 뿜었다. 市廳은 李台熙와 朴潤基의 콤비플레이로 韓電문전을 수시로 위협했고 韓電은 터치라인을 타고 침투, 드로잉을 얻어낸후 南性鉉이 市廳골문앞까지 길게 볼을 던져 득점기회를 노렸다.

팽팽히 맞서던경기는 전반13분 市廳쪽으로 기울기시작했다. 李台熙가 朴潤基의 센터링을받아 헤딩으로 선제골을뽑아냈다.

팀웍과 개인기가뛰어난 市廳은 전반18분 朴潤基의도움을받아 李台熙가 통렬한슛을날려 한점을 추가했고 1분후인 19분 韓電수비벽이무너진 틈을타 朴潤基가 李台熙의 어시스트로 한골을 또보태 전반서 3-0으로승리를 굳혔다.

전반슛11-5로 우세를 보였던 市廳은 후반들어 2명의 주전 선수를교체하는 여유를 보였다. 韓電은 여러차례 격렬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득점을 올리지 못하다가 후반 30분 崔明鎬가 간신히 한골을 만회했다.

다시 맹공에나선 市廳은35분 朴潤基가 단독으로 치고들어가 4점째를올려 대승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朴潤基(서울시청) ▲득점=李台熙(서울시청) 4골 ▲지도=朴炯遠(서울시청감독)

◇결승전

서울시청 4 (3-0 전 / 1-1 후) 1 한국전력

86월드컵 蹴球 美, 유치에 관심

【뉴욕AP=聯】美國은 오는 86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주최하는데관심을 갖고있다고 에드워즈 美축구협회 회장이 2일 말했다.

에드워즈회장은 성명을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86년 월드컵 대회주최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면 美國은 분명히 이대회유치에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美國은 모든필요한시설을 갖추었기때문에 이대회의 이상적인 주최국이 될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美國은 월드컵 대회를 주최한적이 없으며 지난50년이래 월드컵본선에 진출하지못했다.

브라질과 캐나다도 86년 월드컵 대회를 주최할 의사를 표명해왔다.

延世·漢陽 國民·東國 決勝리그 진출

추계大學농구연맹전 中央·弘大등 아깝게 탈락

延世大 漢陽大(A조) 國民大 東國大(B조)가 4강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4일 장충체육관서 진행된 제19회 추계대학 농구연맹전 4일째 A조 경기서 延世大는 주전의 고른득점으로 中央大를95-76으로격파하고 4연승을 기록, 남은建國大와의 대전 승패에 관계없이 결승리그진출이확정됐다.

또한 漢陽大는 建國大를 85-64로 완파, 3승1패를 기록했는데 남은 成均館大와의 대전서 漢陽大가 지고 中央大가 明知大를 이길 경우 漢陽大와 中央大가 3승2패로 동률이 되지만 양팀간의 승자승 우위원칙에의해 中央大를 누른 漢陽大가 결승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B조서 國民大는 월등한 개인기로 신생 弘益大를81-65로 격파하여 東國大와 함께 3연승을 기록, 두팀이 5일예선 1·2위를다투게 된다.

◇제4일전적

▲A조

한양대 85 (40-34, 45-30) 64 대전한국 (3승1패) (4패)

연세대 95 (46-39, 49-37) 76 중앙대 (4승) (2승2패)

▲B조

국민대 81 (49-30, 32-35) 65 홍익대 (3승) (1승2패)

경희대 75 (35-28, 40-42) 70 단국대 (1승2패) (4패)

蘇, 參觀團파견예정 아시안게임에

【모스크바PTI=聯】蘇聯은 뉴델리에서열리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으며 이 대회에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蘇聯의 80년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경기진행담당부장 블라디미르·르디첸코와 국제육상경기연맹부회장 레오니드·호민코프는 82년아시안게임조직위에 대회운영에관한 조언을 해주고있으며 蘇聯은 아시안게임조직위에 모스크바올림픽대회의 입장식및 폐회식필름을 제공하기도 했다.

北韓, 印 아시안게임 15개종목 出戰

북한은 오는19일 개막되는 [illegible] 궁도·육상·농구·복싱·축구·체조·사격·수영·탁구·배구·역도·레슬링·요트·테니스·조정등 15개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후보로 여연식 [illegible] 김혜숙·이철현(궁도) 이종영(마라톤)을 꼽고있으며 이밖에 체조에서 이철원·이수길, 복싱에서 이성국(플라이급) 박용남(라이트플라이급) 레슬링에서 조종호(플라이급)오경환(페더급) 마라톤서이춘근·서창식등에 기대를 걸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印度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⑤

축구

역대代表팀중 得點力 가장약해

한국축구가 아시아의 정상을 뉴델리 아시안게임서도 재확인 할수있다고 장담할수없는 처지가 국가대표팀의 현주소다.

4년전 방콕제8회 아시안게임때만해도 남북한이 결승전서 만나 공동우승을 차지, 한국축구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뉴델리대회 축구 우승전망은 밝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견해.

대한축구협회 상비군위원회(위원장 金政云부회장)도 아시안게임에 파견되는 대표팀의 전력은 역대 대표팀가운데 득점력이 가장 약하다고 분석했다.

지난10월 브라질의 에스포르테, 미국의 코스모스와 가진 4차례의 평가전을통해볼때 대표팀은 문전처리 미숙과 골게터 부재로 40여차례의 슛에서 단1골밖에 올리지못했고 수비도자주뚫려 6골이나 허용했다는것.

작전도 단조로왔으며 선수들이 볼을 오래끄는 습관, 후반에서의 체력열세도 개선되지않은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점들이 앞으로 며칠 남지않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보완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78년 방콕대회를 마친후 車範根 許丁茂 趙榮增 洪性號 朴商寅 李榮武등 우수한 대표선수들이 국내외 프로팀으로 진출함에따라 崔淳鎬 丁海遠 李泰昊 朴景勳등 신인들을 기용했다. 20전후의 신진들은 선배들못지않은 기량과 플레이를 보이고있지만 대표경력이 짧은탓인지 4년전같은 안정된 팀웍은 눈에뜨이지 않는다.

20개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서는 78년 방콕대회 4강팀을 각각 다른조로 배정, 대진표를 짜는 시드제가 채택되어 한국은 지난대회 공동우승팀인 북한과는 1차 조별예선리그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 월드컵에 참가했던 쿠웨이트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등이 시드제에 적용되지않아 같은조에서 맞설 가능성이 많다고 대표팀 崔殷澤감독은 말한다.

◇한국대표팀은 연중무휴의 강화훈련을 쌓아왔으나 아직도 득점력 빈곤, 문전볼처리 미숙등의 약점을 극복하지못하고있다。금년 2월 鎭海동계훈련장서 가볍게 몸을 풀고있는 모습。

崔감독이 우선 손꼽는 강적은 북한.

북한은 80년9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서 한국에 2-1로패한후 한국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에 불참하며 전력을 쌓아온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에 접어들어 급템포로 성장한 쿠웨이트, 中共, 이란, 이라크도 힘겨운 상대이다.

대표팀의 실력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못하고 있지만우승전망이결코비관적인것만은 아니다. 팀웍을가다듬고 투지를살린다면 우승도 할수있다고 金正男·金鎬坤 코칭스태프는 결의를 보였다.

【安泰煥기자】

◇아시안게임축구전적

대회	장소	우승팀	한국성적
1	뉴델리	인도	불참
2	마닐라	자유중국	준우승
3	동경	〃	〃
4	자카르타	인도	〃
5	방콕	버마	예선탈락
6	방콕	한국·버마	공동우승
7	테헤란	이란	예선탈락
8	방콕	한국·북한	공동우승

◇축구선수단

▲감독=崔殷澤 ▲코치=金正男 ▲트레이너=金鎬坤 ▲선수=鄭聖教 朴英洙(GK) 崔景植 朴成華 朴景勳 張外龍 崔基奉 安柄泰 鄭鍾洙(이상FB) 李泰昊 趙廣來 李康助 李興實(이상HB) 崔淳鎬 邊炳柱 丁海遠 姜信寓 金錫垣(이상FW)

제5회

카나다 태권도대회

금번 한인태권도협회 주최로 범교민적인 체육행사로서 태권도대회를 갖고저 하오니 교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Sat. November 20, 1982

York University Gymnasium
Tait McKenzie Building
4700 Keele Street, Toronto

예선전 : 12 : 00a. m.
결승전 : 7 : 00p. m.

티켙 : 성 인 $5.
어린이 $3. (12세 이하)

－연락처－

정기태 922－5117
정영수 652－0000
손명수 763－1155
서정길 630－3095
박종수 961－7100
박주삼 535－4000
한만수 244－5824

주최 : 카나다한인태권도협회

후원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미도파백화점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해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논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비데오머신가게 메니저 구함.
남·녀 불문. 아침11시~저녁11시
전화: 821-4791, 638-0713

스토아 여자 파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8-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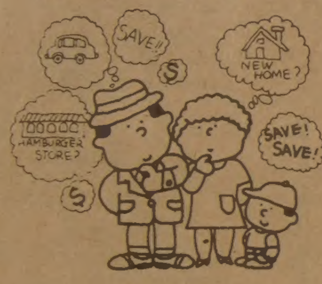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풀타임.
전화 : 598-2546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급구〉 Pizza 집에서 Cash와 Order 받을
영어에 능통한 여자분 구함 .
전화: 267-2292(Mr. 문)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5 일에 $ 15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세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람.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A.L.	862-8250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 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Derry Rd.)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깨끗하고 전망좋은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4,000~$4,500 Video Arcade(licence 있음)
전화: 560-0612 MR. CHUNG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 아스킹: $59,000 +스탁(4만) 캐시다운: $55,0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선물용 Gift Shop 쇼우 케이스(4ft.) 5개
◉중간 유리 Shelving 3개
전화 : 656-086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200-$3,5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272 Jane St. (at Bloor)

그로서리 Store 매매.(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아파트 달린것)
Mr. Jones 전화 : 889-8654
W.R. CASE REALTY LTD.

버라이어티·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Bloor & Indian Rd.
전화 : 535-6838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사 람 찾 음

수원사시던 홍정애씨를 찾읍니다.
전화: 294-5750 MRS. 리.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방세놓습니다. Victoria Pk. & Finch코너
여자분에 한함.
전화 : 497-4221 Mr. 김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모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89,0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성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광고문의 533-2361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 물 센 타

미·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앞서 가는 한인 대변지

한국일보

곧고 바른 붓끝으로 오늘의 歷史 증언하는 한국일보

深層분석「日曜特輯」

한국일보 특집판

'코끼리만한 돼지' '여성의 중년'같은 제목의 특집기사를 보신 일이 있읍니까? 한국일보는 일요일마다 특집을 기획하고있는 국내유일의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의 우수한 취재진이 독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취재·분석하는 일요특집은 그 철저한 기자정신과 국내외에 걸친 기동력으로 국내신문계에 심층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읍니다. 활자미디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요특집이 있는 한 "요즘 신문은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세평은 잘못된 것입니다.

人間群像을 보긴「탈」

이름 대신 탈 하나가 그려진 고정란, 무명이면서도 유명한 한국일보 사회면의 인기 칼럼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사회의 온갖 인간 군상이 매일같이 등장하는 이 이름없는 상자형(箱字型)의 기사는 우리시대에서 만나는 가장 흥미있는 인물기(人物記)이자 인생극장 회전무대에 명멸하는 주역들을 위한 독특한 비망(備忘)입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자리잡은 한국일보의 인간칼럼—탈쓴 진면목(眞面目)에 주목해 주십시요. 무명의 민중들만이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重厚한 기획
뜨거운 特種으로
가득찬 新聞!

權威자랑하는「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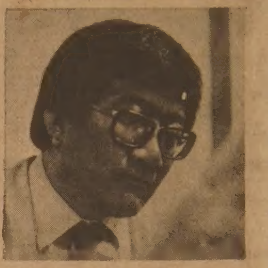
週末政局 · 生活경제 · 國際焦点

한국일보는 각종의 해설기사가 강하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돌발하는 뉴스와 딱딱한 정책을 우리의 생활감각으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잘못된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시정하는데 한국일보의 각종 해설 기사들은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국제정세분석, 정치및 정치해설, 경제진단, 사건추적 등에 걸쳐 한국일보의 각종 해설기사들은 전문가와 일반독자들로부터 함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종뉴스와 심층해설—이것은 앞서가는 신문 한국일보의 변함없는 두 기둥입니다.

名칼럼「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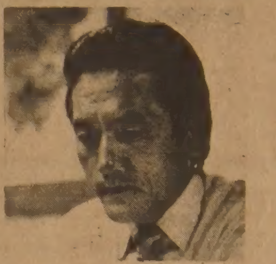
'메아리'를 읽고 계십니까?
어떤 독자는 '메아리'를 가리켜 "충격의 칼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읽을 때마다 가슴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메아리'는 金聖佑·金昌悦 두 편집위원이 하루씩 바뀌가며 집필합니다. 두 편집위원은 각기 다른 개성과 다른 필체로 우리 시대의 양식(良識)과 정론(正論)을, 화제와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읍니다. '메아리'는 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상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전하며, '좋은 글을 읽는 행복'까지를 선사하는 명 칼럼입니다.

金昌悦 〈편집위원〉



'메아리'를 쓰는 두 편집위원중 한 사람, 金昌悦 편집위원은 오랜 사회부일선기자생활과 편집국장을 역임한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는 서울대법대를 나와 1958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했읍니다. 한국일보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편집국장등을 차례로 역임한후 최근까지 논설위원으로 일했읍니다. 그는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필치로 날카로운 사회비평의 글을 쓰고 있읍니다.

金聖佑 〈편집위원〉



'메아리'를 쓰는 두 편집위원중 한 사람, 金聖佑 편집위원은 오랜 해외특파원생활에서 돌아온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는 서울대문리대정치학과를 나와 1956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했으며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수학했읍니다. 한국일보 週刊한국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대리 등을 역임하고 파리특파원으로 7년여동안 일했읍니다.

女記者 社會批評칼럼

女記者 칼럼

張明秀

이 칼럼은 한국일보문화부차장 張明秀기자 혼자서 집필하는 고백적인 생활일기이며 신랄한 社會비평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왜 고민하는지, 어떻게 역증하는지를 그 스스로 중년의 주부이기도 한 張차장은 숨김없이 묻고, 털어놓고 있읍니다.
'女記者칼럼'을 집필하는 張明秀차장은 梨花女大신문방송학과 제1회 졸업생으로 1964년 한국일보에 입사했읍니다. 그는 편집부·사회부기자를 거쳐 오랫동안 문화부기자로서 여성문제를 담당해 왔으며 정력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많은 우수한 기사를 써왔읍니다.

두꺼비 안의섭 · 社會漫評

安義燮

'두꺼비'와 '社會漫評'을 매일같이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한국인의 아침을 보다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만약 '두꺼비'의 해학이나 기지, '社會漫評'의 통렬한 비판정신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 한국인의 아침은 얼마나 삭막한 것이 될것입니까?
한국일보 安義燮편집위원은 '두꺼비'와 '社會漫評'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일보가 새로와 졌읍니다

주간女性
여성을 위한 정성/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화제폭발의 여성저널.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 Bayview · Millwood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